

# 뷰티 인사이드

감독 백종열

제작 용필름

2014. 08. 06

## ● 원작소개 : The Beauty Inside

2013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 석권, 2013 클리오 국제광고제 금상 수상작!

인텔&도시바의 합작 소셜 필름, 〈The Beauty Inside〉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모습이 달라지는 남자가 있다. 어느 날은 여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노인이 되었다가, 남녀노소, 심지어는 외국인으로까지 변하는 남자.

이런 말 못할 사정 탓에 그에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어떤 여자와 밤을 보내든 '상대방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날 것.' 둘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들이지 않을 것.' 셋째, '자기 말고는 기억해줄 사람이 없는 자신의 얼굴을 매일 녹화할 것.'

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별로 불편할 건 없다. 알렉스는 늘 알렉스이고, 변하는 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니깐. 오히려 매일 달라지는 모습으로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는 생활은 즐겁기까지 하다.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변화를 즐기며 살아가던 알렉스는 한 앤틱 가구숍에서 우연히 "레아"를 만나게 되고……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레아와 꿈만 같은 데이트를 한 알렉스. 이전 자신의 변하는 모습이 원망스럽다. 레아 옆에서 눈을 뜨고 그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 레아와 함께 집에 들어가 행복한 일상을 남기고 싶다. 자신이 정해두었던 규칙 따위는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레아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그는 레아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과연 그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 ● 기획의도

여기, 매일 모습이 바뀌는 남자가 있다. 학교를 제대로 졸업할 수도 없었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도,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될 수도 없었다. 그런 남자가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이라면 이 남자를, 이 남자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당신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진 진실인가요? 아니면 그의 진심인가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The Beauty Inside〉

## 1. 부티크 호텔 객실 (D)

지난밤 뜨거웠던 남녀의 흔적으로 어질러진 방안 전경.  
침대엔 매끈한 등을 드러낸 반라의 여자가 잠들어 있다.  
이때, 시계 알람이 울리자마자 끄는 두툼한 손. 우진(01 / 남 / 30대 중반 / 뚱뚱한 남자)이다. 그는 한참 작아진 티셔츠를 목에 끼우고 있다가 갑자기 정지 자세가 된다.  
보면, 어느 새 잠에서 깬 여자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그를 멍뚱뚱 보고 있다.

**여자**  
넌 누구세요?

티셔츠 소매에 나머지 팔을 끼우면서, 어색한 미소를 날리는 우진(01).  
그 위로 껴악- 하는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방안을 울린다.

CUT TO :  
입다 만 옷가지와 함께 호텔 복도로 쫓겨난 우진(01). 한숨 쉬더니, 주머니에서 치실을 꺼내 벌어진 바지 여밈에 응급처치를 한다. 한 두 번이 아닌 듯 익숙해 보인다.

## 2. 귀가 몽타주 (D)

- 버스 정류장.  
휴대폰 액정에 뜬, <2014.8.1. 김유미>. 우진(01), 수신거부 목록에 넣는다.  
감자 한 알 만한 뒤통치가 신발 밖으로 튀어 나온 우진(01)의 발. 버스에 오른다.

- 만원 지하철.  
뚱뚱한 그의 몸이 닿자 괜히 불쾌해 하는 사람들. 눈치 보며 숨 참는 우진(01). 창에 비친 제 얼굴 보며,

**NA**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우진(01),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

**NA**  
얼굴이 반이나 크네.

쓴 미소를 짓는 우진(01). 그의 얼굴 위로, 도심의 그림자가 무심히 지나간다.

- 우진 집 앞 골목길.  
쿵쿵 짓는 강아지. 우진(01) 뚱뚱한 손으로 비닐을 까다가 삼각 김밥 특- 떨어트리면, 강아지가 달려들어 먹어치운다. 피식- 쓴 웃음 흘린 후, 껌질을 깠 소시지도 특 던져주고 가는 우진(01).

### 3. 우진의 일상 몽타주

우진 집 실내. 탁 트인 2층 높이의 공간으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우진 작업 공간인 1층을 거쳐 계단을 올라 침실로 향한다. 지친 듯 침대에 눕는 우진(01). 눈을 감는다.

NA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외국인까지...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 침대에서 눈을 뜨는 우진(몽타주-남/녀). 다른 사람이다. 알람이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레 끈다.

가만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손과 몸을 살펴보며 달라진 제 모습을 체크하는 우진(몽타주-남/녀).

그 뒤로, 시시각각 변해 다양한 우진(몽타주-남녀 다수)의 모습들이 이어진다.

침대를 정리하고 빠져나와,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우진들(몽타주-남녀 다수).

- 욕실의 거울을 보는 남자 우진(몽타주남). 거울로 된 선반을 열면, 남녀 생활 용품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 안에서 면도기를 꺼내고, 선반을 닫으면 여자로 변한 우진(몽타주녀). 세수 중이다.

NA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지... 모른다.

- 커피를 마시며, 손톱을 바짝 깎고, 시력 측정용 안경으로 시력 확인하는 우진들(몽타주-남녀 다수).

신발 사이즈, 허리 사이즈 등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우진들(몽타주-남녀 다수). 구비된 옷장에서 옷을 골라 입는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서, 아- 아- 다양한 모습으로 목소리 톤을 조정해가는 우진들. 언어도, 목소리 톤도 다 제각각이지만... 발음을 해갈수록 특유의 말투가 자연스럽게 붙어간다.

우진(몽타주-남/녀)

오늘은 목소리만 괜찮네.

- 우진의 1층 작업실. 벽에 붙여진 대형 세계지도. 그 위에는 여기저기 표시와 메모가 되어 있다.

작업대 위에 펼쳐진 스케치들과 가구 디자인 도면.

NA

나도 날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 그건 너무 어렵다.

각각의 수치나 메모 등을 자신의 팔뚝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며 작업하는 우진(01).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그. 가구가 성형되어 가는 것과 함께, 외모가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한다.

NA

그래서 혼자서 일한다. 혼자 가구를 디자인 하고 혼자 만든다.

- 테라스. 석양 아래 놓인 테이블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는 우진(01).

노트북으로 인터넷 बैं킹을 하고,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메일도 확인한다. 정리되는 메일 가운데 여러



번 보이는 이름, 홍이수. 입점 의뢰 메일이다. 화면 끄고, 음악 켜는 우진(01).

**NA**

딱히 불편할 건 없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한 요즘...  
얼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오히려 편하기도 하니까.

그의 시선에, 동네풍경이 들어온다.

우진의 시선으로 쓱 들어오는 상백. 우진 놀란다.

**상백**

오... 비주얼 좋은데? 가야지!

**우진**

오늘은 피곤해. 디자인도 아직 안 끝났고...

**상백**

사장이 시키면 노는 거지...  
야, 이런 비주얼 혼자 즐기는 건 죄다...

피식 웃는 우진. 꺾이는 표정의 상백.

매력적인 얼굴로, 씨익- 살인미소 짓는 근사한 외모의 청년 우진(02 / 남 / 20대 초반 / 꽃미모 청년).

#### **4. 라운지 바 (N)**

설레는 심장 소리 같은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상백은 여자에게 '혼자?'라며 자연스레 작업을 걸고 있다.  
우진(02), 바텐더에게 주문한다.

**우진(02)**

진토닉.

여자1, 우진(02)가 마음에 든 듯 미소 짓는다. 이후, 다양한 모습의 우진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여자1**

무슨 일 하세요?

여러 모습을 한 우진(몽타주-남자 다수)이 각각 다른 대답을 한다.

**여러 우진(몽타주-남자 다수)**

공무원이에요. / 회사원. / 파일럿. / 의사. / 엑스트라.

**여러 여자**

지루하지 않아요? / 연봉은? / 우와!!! / 피 안 무서워요? / 잘생겼다~.

이때, 나타나는 술 취한 상백.

#### 상백

그치. 잘 취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비밀하나 얘기해주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 여러 상백

(취중. 옷이 바뀌며)

내 친구가 / 하나 있는데 / 애가 / 자고만 일어나면 / 얼굴이 막 바뀌

#### 여러 여자

에이 / 그런 사람이 / 어딴어요?

#### 여러 상백

(취중. 옷 계속 바뀌며)

있다니까~ 남자로도 여자로도 아이로도 할아버지로도...  
/ 막 바뀐다니까? 어때, 좋겠지? / 응? 맨날 다른 남자랑, 응? 응?

#### 여러 여자

(갇가지 표정 짓더니, 결국은 돌아서서 가버리는)

또 한 여자, 부드럽게 취한 눈길로 보는데.

반창고를 아무렇게나 붙인 상처투성인 손. 그리고 손목에 있는 우진의 실팔찌. 또 다른 얼굴의 우진이다.

#### 우진(몽타주남)

일 하다 와서...

#### 여자14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살면, 기분 어때요? 보는 난 좋은데~.

시끄러운 라운지 바 안...

전화기 내미는 여자. 다른 여자15. 전화번호를 저장 중인 우진(02). 낱자와 이름을 함께 쓰는데,

#### 여자16

손, 아프겠다. 나 반창고 있는데... 나갈래요?

우진(02) 빙그레 미소 짓는 얼굴. 그 위로, 흥겨운 배경 음악이 이어지며.

### 5. 부티크호텔 객실 (D)

첫 장면과 같은 공간, 같은 분위기.

잠들어 있는 여자 옆에서 가만히 몸을 일으키는 남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백발인 우진(03 / 남 / 70-80대 / 노인)이다. 조심스레 잠든 여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바닥에 벗어놓은 옷들을 소리 없이 서둘러 입는데,

남의 옷 마냥 바지허리가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자,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 익숙한 솜씨로 바지 여밈에 응급처치를 한다. 손가락을 덮은 셔츠 소매자락 역시 동동 걷어 올린다.  
물기 어린 처연한 눈동자로 그녀의 잠든 등을 가만히 응시하는데, 울리는 알람 소리. 여자가 뒤척이자, 우진(03)은 서둘러 자신의 시계 알람을 끄고 험령한 신발을 대충 껴신고 방을 나선다. 문고리를 잡는데, 거울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상처 받은 표정인 우진(03), 축 처진 어깨로 방을 나선다. 이어서 툭- 닫히는 문.

## 6. 귀가 몽타주 (D)

- 버스 정류장.

휴대폰 액정에 뜬, <2014.7.8. 한지은>. 우진(03), 수신 거부 목록에 넣는다.

험령한 신발. 다시금 손가락 끝까지 내려온 소매를 접어 올리는 우진(03). 버스에 오른다. 이어지면,

- 지하철.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 낀 우진(03). 사람들 틈사이로 반만 보이는 제 얼굴 보며,

NA

어제는 팽팽해서 터질 듯 했는데, 오늘은...

우진(03)의 흐릿한 시야.

NA

보이지도 않는다.

초점 맞추려 쫓그리는 우진(03). 그의 얼굴 위로, 도심의 그림자가 무심히 지나간다.

- 우진네 골목길.

편의점 앞 강아지가 쿵쿵 짖는다. 우진(03)이 삼각 김밥 까먹으며 소시지 주면, 강아지가 애교 피운다.

우진(03)

그래, 나야. 알지?

다시 낯선 사람 경계하듯 쿵쿵 짖는 강아지. 얼른 물러나는 우진(03). 그 위로,

NA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날 몰라본다고 원망할 순 없다.

## 7. 우진의 집 (D)

우진(03) 노트북으로 녹화 중이다.

화면을 향해, 이- 해보는 우진(03). 이가 들성들성 빠져 있다.

NA

이렇게 혼자 이별 하면서 살아간다. 12년 전... 그날부터.

우진의 컴퓨터에 저장된 다양한 우진의 모습들과 날씨가 과거로 흐르며, 그 위로 타이틀 오른다.

## The beauty inside

### 8. 과거 몽타주

- 과거 우진 방.

고등학교 교과서들과 화집들이 꽂힌 책꽂이.

NA

그날은 내 열여덟 생일이었다.

요란한 알람과 함께 책상 위에 엎어져 자다 후다닥 깨는 우진. 대머리 중년이다.

대충 눈곱만 떼고 급히 교복을 주워 입고 거울을 본 우진(대머리남). 경악한다.

NA

꿈이겠지? 했다.

- 우진母的 뜨개질 가게.

혼자 뜨개질 뜨고 있는 우진母. 대머리 중년의 우진이 패닉에 빠진 얼굴로 맨발인 채 들어온다.

우진(대머리남)

...어...엄마...

이상한 듯 바라보던 우진母의 눈동자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NA

엄마는 나를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갔다.

- 과거 우진네 거실.

우진母, 입술을 짹 깨문 채 우진(대머리남)을 보고 있다. 대머리 중년의 우진, 두려운 눈으로 그녀의 말을 기다린다.

NA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었다...

그렇게 내 평범했던 인생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우진母, 우진(대머리남)을 끌어안는다. 자신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NA

당연히 학교도 갈 수 없었고...

- 현관문 앞에 몇 명의 고등학생들, 무거운 얼굴로 서 있다.

**우진** 母

...우진이가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

**상백**

그래 녀들은 그냥 가. 자식들 괜히 시끄럽기만 하게.

**우진** 母

상백이 너도...

멈칫하는 상백, 이내 서운한 얼굴로 비닐봉지를 내민다.

**상백**

우진이가 좋아하는 데서 산거예요.

특pecially 오뎅도 많이 넣었다고 전해주세요.

우진 母, 받아보면 떡볶이다. 방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 우진, 착잡한 얼굴로 문을 닫는다.

**NA**

그저 평범한 삶의 구경꾼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르다는 걸... 달라지고 말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 상백과 친구들 졸업식 사진. 그 끝에 홀로 서서 반쪽만 나온 푸른 눈동자의 외국인. 우진이다. 그 위로,

**NA**

하지만 결국, 인정해야만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젠 매일 낯선 얼굴로 혼자서 견디며 살아가야한다는 걸...

- 시력 측정 안경과 그림판을 사고, 신발 재는 기기를 사고, 머리 묶는 기술이 늘어가고,
- 엄마가 준 아줌마 용 속옷을 보고 한숨 쉬는 우진(몽타주녀). 잠시 후, 여자 속옷 가게를 몇 번이고 서성이다, 결국 들어가서 발개진 얼굴로 종류 별로 쓸어서 사는 우진(몽타주녀).
- 인터넷으로 공부 하다가 미니홈피 등으로 대학생이 된 친구들 사진을 보는 우진(몽타주-남/녀).
- 여러 사람과 함께, 다양하게 변하는 SNS 속 친구들과 달리 오직 셀카로 여러 사람으로 기록된 우진들.
- 가구를 스케치하는 우진(몽타주-남/녀). 컴퓨터로 스케치한 의자를 캐드작업을 해본다.

**NA**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말에 의지한 채, 열심히 지냈다.

그렇게 요령도 생기고 할 일도 찾아가면서 간신히 혼자라는 데 익숙해질까 무렵...



현관 벨소리. 우진(뚱뚱한 중년여자), 나가보면 상백이다. 술에 취해 맨발로 비틀거리며 서 있다. 우진이 현관 계단 아래 벗어놓은 상백의 신발을 보는 사이, 상백은 집안에 들어와 흠발자국 남기며 털썩 앉는다.

**상백**

이 자식 아직 시골에 있어요? 서운한 새끼!...아참, 이거 전해주세요.

비닐봉지 내민다. 보면, 떡볶이다. 우진, 울컥한다.

**우진(뚱뚱한 중년여자)**

상백아... 고맙다...

**상백**

아후, 어머니 고맙긴요. 같이 드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못 뵈 사이 살이 많이 찌셨네요.

우진(뚱뚱한 중년여자)가 보면, 상백 어느새 떡볶이 꺼내 먹고 있다.

**상백**

어머니, 떡볶이엔 복분자준데, 그쵸?

(비칠비칠 일어나면서도 익숙하게)

걱정 마세요. 제가 꺼낼게요.

우진이 놈이랑 어머니 몰래 먹을 때도 키 크고 힘 좋은 제가 다~ 했어요.

그때 반이나 마시고 소주 부어놔었는데...

(하며 돌아보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백 앞에는 어느새 집에 온 우진 똘가 서 있다.

**상백**

(우진(뚱뚱한 중년여자)와 우진 똘를 번갈아 보다, 우진에게)

누...누구세요?

**NA**

녀석에게 고백을 했다.

- 우진 방.

**NA**

녀석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한참 들여다봤다.

광대가 툭 튀어나온 중년 남의 우진, 상백과 마주앉아 있다. 상백, 병쩡 얼굴로 우진(광대남)을 보고.

**NA**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상백 푸핫 하고 웃음 터뜨린다. 불쾌한 얼굴로 보고 있던 우진(광대남).

**NA**

나도...웃었다.

이내 피식 피식 웃음 터뜨린다. 두 사람, 한참을 그렇게 신나게 웃는다.

- 알뜰뜰하게 취한 상백, 우진(예쁜 여자)가 고친 의자에 앉아 있다.

**상백**

너 우진이 맞지?

**우진(예쁜 여자)**

뭔 소리야...

**상백**

(갑자기 더 없이 그윽하게)

우진아... 친구야...

**우진(예쁜 여자)**

(보면)

**상백**

내가 너 하나밖에 없는 친구 맞지?

**우진(예쁜 여자)**

왜 그래?

**상백**

야... 우리 우정의 힘으로... 응? 맨날 이렇게 여신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평생 잘할게!

**우진(예쁜 여자)**

미친 거 아냐? 절대 안 돼!

**상백**

의리도 없이 한사코 서운한 놈. 그냥 눈 딱 감고 함 하자...!

그런 얼굴, 그런 몸매, 솔직히 너도 알잖아. 딱 내 이상형인 거.

그리고 솔직히 그 외모로 나무 샌딩이나 하다 자버리는 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니까...

**우진(예쁜 여자)**

미친... 길은 이래도 속은 나야, 나. 우진이라고.

## 상백

그니까 눈 딱 감으라니까~. 너무 맨 정신이라서 그러냐? 그럼 너도 마실래?

상백이 우진에게 술 먹이려 달려드는데, 돌아서 욕을 하며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한다. 그러다 우진(예쁜 여자), 상백에게 어퍼컷을 시원하게 날린다. 쓰러지면서도 우진(예쁜 여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뭇한 상백의 얼굴.

- 주변 배경으로 시시각각 계절이 변하는 가운데,  
가구를 만들고 있는 여자 우진에게 애원하다 맞는 상백,  
가구를 같이 만드는 상백과 여러 우진(몽타주-남녀다수).  
그 가구를 표절한 상백네 가구 회사. 사과하는 상백과 괜찮다는 우진의 모습 등등...이 흐른다.
- 떡볶이 집.

## 상백

나 잘렸다. 개뿔 가구도 후지면서... 맨날 카피나 해대고...

(우진 보지 않은 채 떡볶이 먹으며)

야! 이참에 창업할라구. 너 그리고 난 만들어 팔고. 괜찮지?

그리고 우리 약속하나 하자.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 표시를 해.

어... (제스처를 취하며) 손가락으로 널 가리켜. 그래야 알아보지.

이건 도통 어느 놈이 넌지, 어떤 년이 넌지 알 수가 있어야지.

## NA

녀석에게 고마웠다.

디자인 하는 건 혼자도 충분했지만, 파는 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곤 아무래도 쉽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 서로 오뎅 국물이 담긴 컵으로 건배를 한다.

## 9. 우진 작업실 (낮)

침대에서 눈을 뜨고 제 모습을 확인하는 우진(04 / 남 / 40대 초반 / 미중년).

알람을 끄고, 침대 정리를 하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면도와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손톱을 깎고, 시력 검사, 신체 치수를 체크하고 옷을 골라 입고 신발 깔창을 깔아 신고 작업실로 내려가는 우진(04).

우진(04), 컴퓨터로 가구 도면을 보며, 필요한 재료와 그 치수 등을 팔에 메모한다. 그 위로, 팝업창.

##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마스튜디오의 홍이수입니다.

입점 요청 건으로 연락-

(하는데)

우진(04), 팝업창 지우면 사라지는 목소리. 우진, 다시 자기 일에 열중하는데, 핸드폰 진동이 느껴진다.

귀찮은 듯 주변을 뒤져 전화 확인하면, 상백이다. 받으면,

**상백**

(소리)

샘플 나왔어.

이 형님 저녁에 데이트 있으니까, 빨랑 터 와라.

## 10. 상백의 공장 (N)

우진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킨다.

**상백**

어 왔어?

CUT TO :

우진(04)와 상백, 소파 목대 앞에 두고 도면 들고 얘기중이다.

**상백**

가구랑 가전제품 컨버전스는 어때?

테이블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트랜스포머처럼 숨겨진 오븐 나오고,  
책상 상판 뒤집어지면서 컴퓨터랑 연결된 모니터 화면 나오고... 괜찮지?  
(싱글싱글 웃으며)

딱 좋지?

**우진(04)**

(무심하게)

그냥 난 디자인 하고 넌 만들어서 팔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걸로 하자.

(상백이 공기랑거리며 말 보태려는데)

너 아니면 누가 이런 디테일을 살리냐.

내가 만든 샘플보다 퀄리티 좋다.

손잡이 각진 거 조금만 더 굴리면... 한 번에 딱 떨어져서 완벽할 거 같네.

**상백**

(툭툭)

그 노무 칭찬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지.

더 굴려서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할 테니까, 대신 부자재들은 좀 저렴한 걸로 가자.

그 정돈 들어줄 거지? 아..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 골라줘.

아, 좀 이런 건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좇나 예술적인 디자이너 선생님이?

피식 웃는 우진(04).

## 11. 마마스튜디오 (N)

사이좋게 가구를 고르는 노년의 부부 모습. 이를 물끄러미 보는 시선. 보면, 우진(04)다.  
쓴 미소 짓더니, 샘플로 사용할 손잡이를 찾는 우진(04).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  
가구들마다 그 위에 마치 와인의 라벨 같은 가구 이력서가 붙어 있다.  
각 가구의 출신 공장 실제 사진으로 가공 과정 특징적으로 찍힌 사진들이다. 이를 보는 우진(04)의 얼굴.  
그때, 그의 얼굴로 빛이 반사되어 반짝인다. 바라보면, 그 위로 차분한 음성이 들려온다.

### 점원

(V.O)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우진(04)가, 뭔가에 이끌리듯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면,  
가구 사이, 사이 너머 보이는 여자 점원, 이수다. 음성만큼이나 포근한 미소와 다정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 손님

심플하고 기능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되면 좋겠어요.  
개인 작업용이라...

이수, 조용히 따르며 손님 몰래 자신의 키와 체격을 비교 중이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있는 우진(04).

### 손님

아, 가격은 상관없구요.  
(이수 돌아보면)

### 이수

(손님과 자기 비교하던 거 멈추며 시침 떼고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손님이 긍정의 고덕임을 보이자 조심스럽게)  
사실 제가 52kg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실 거 같아요. 그쵸?

### 손님

(무슨 소리냐는 듯)  
저 그렇게 안 뚱뚱하거든요. 전 딱 50이예요.  
(하다가 이수가 자기보다 훨씬 마른 거 깨닫고 무안해져)  
근데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요?

### 이수

아... 작업하실 때 사용하실 의자면, 고객님의 체격에 맞는 의자여야 오래 사용해도 편하니까요.  
이 의자 어떠세요?

손님, 그녀의 말에 의자에 앉아본다.  
이수를 보는 우진(04)의 미소.



**이수**

(우진 보며)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그녀를 바라보는 우진(04)의 말간 눈동자와 표정.

CUT TO :

가게 물건을 함께 둘러보고 있는 이수과 우진(04)

**이수**

이건, 생긴 건 좀 투박하고 무겁지만 내구성이 좋아요.

(사진 이력서 보며)

그리고, 사용된 목재가 폐선박을 리사이클링한 거라 더 특별한데,

(가구 구석에 박힌 표식 가리키며)

여기, 선박이 만들어졌던 년도가 있어요. 200살도 넘었네요. 겉모양은 변했지만,  
그 안은 몇 백 년이고 그대로... 이런 걸 살 때면, 누군가의 인생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진, 그녀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짓는다.

의아한 표정의 이수.

**우진(04)**

그런데... 앉는 사람한테 너무 바른 자세 하나만 강요한다는 게 아쉽네요.

**이수**

네. 디자이너 분이 의사와 함께 개발해서 그래요.

**우진(04)**

바른 자세도 좋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선 편한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수**

(잠시 망설이다)

그런 거라면, 사실... 좋아하실 게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진(04)**

(보는)

**이수**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혹시 +아세요?

(스마트 폰을 꺼내서 우진 가구 블로그 열어 보여주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사용한 자재도 좋아요.

(주변 눈치 보며 조심스레)

주문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우진(04)**

이래도... 돼요?

**이수**

안돼죠.

(하면서 웃는)

서로 미소를 나누는 우진(04)와 이수.

**NA**

여긴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왜 그동안 그녀를 몰랐지?

F.O.

## **12. 이수를 바라보는 우진의 몽타주**

- 마마스튜디오. 새 가구가 들어오고, 반품을 해야 하는 가구. 지난 번 우진과 얘기를 나누던 의자다. 이를 사는 노인인 남자 손님. 그의 손목에 걸린 실팔찌. 우진(노인)이다.

- 마마스튜디오에 있는 이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우진(몽타주-남녀다수).

- 점심시간. 길게 늘어선 맛집. 줄 끝에 서 있다가, 시계를 확인하고 한숨 쉬더니 다른 곳을 향하는 이수. 이때, 줄 앞에 서 있던 못생긴 남자가 이수를 불러 세우더니, 자기 대신 잠시만 줄을 서달라고 말한다. 잠시 후, 줄을 서 있는 이수 차례가 온다. 망설이던 이수, 옆에서 채근하는 동료와 함께 가게로 들어간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수. 이를 보며 미소 지으며, 삼각 김밥 먹는 남자. 우진(몽타주남)이다.

## **13. 우진 집 (D→N)**

작업실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는 우진(몽타주-남/녀). 쓱쓱- 그러가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그. 어느 새 그가 스케치한 가구에 앉아 있는 이수를 그리고 있다. 문득 깨닫고,

**NA**

내가 왜 이러지...

보면, 좌르륵 넘어가는 드로잉 북. 그 안에는 가구가 아닌 이수의 모습들이 면면이 스케치 되어 있다.

특히 이수 특유의 환한 미소가 다양한 각도로 그려져 있다.

그러다 유리컵에 비친 자기 얼굴 보는 우진(몽타주-남/녀), 또 다른 얼굴이다. 그 느낌 이어지며,

우진(몽타주-남/녀)가 컴퓨터로 자기 얼굴 확인하고 한숨 쉰다. 그리고는 침대에 이불 덮고 누는 우진(몽타주-남/녀). 그 위로,

**NA**

아... 진짜... 생각하고 있으면 잘 안된다니까...

알람 소리. 그 옆으로 이미 비어 있는 침대가 보인다.  
보면, 컴퓨터 화면 속 얼굴을 확인하는 우진(몽타주-남/녀)의 모습. 그 화면 안에서 시시각각 얼굴이 달라지는 우진(몽타주-남녀 다수).  
그 뒤로, 마마스튜디오에서 사온 가구가 늘어나는 게 보인다.

**NA**

못 생긴 것보단 잘 생긴 게 낫고,  
나이가 많은 것보단 어린 게... 아니 젊은 게 낫고...  
작은 것보단 큰 게 낫고...

평범하지 않은 외모로 변한 우진(몽타주녀)이다.

**NA**

근데 이걸 진짜! 아니잖아. 차라리 어제가 나왔어. 어젠 적어도 남자였잖아.

**우진(몽타주녀)**

아... 정말 오늘은 진짜 아니야.

컴퓨터 탁- 닫는 우진의 손.

**NA**

제발, 오늘은 제발...

거울을 보는 우진의 뒷모습.

**NA**

**됐다!**

뒤통수만 보인 채로 있는 우진(05 / 남 / 20대 후반 / 혼남). 설레는 듯 외출 준비하는 뒷모습.

## **14. 마마스튜디오 (D)**

가게로 들어서는 우진(05). 가게 입구의 거울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우진의 모습.  
우진(05), 문득 멈춰서 제 모습을 비춰본다. 그제야 제대로 드러나는 우진(05)의 훈훈한 외모.

**NA**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그 전에 접근부터 해야 다음도 있는 법이지.

우진(05)가 이수를 찾아 가게 안을 두리번거린다.

다른 직원들이 우진(05)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는 이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손님 응대 중이던 이수가 우진(05)를 본다. 우진(05),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햇살 같은 미소를 던진다.  
이수 표정.

## 15. 마마스튜디오 앞 (D)

차에 가구를 싣고 있는 우진(05). 옆에서 이수가 거들고 있다.

**이수**

이틀 만 기다리시면, 새 제품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전시품으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진(05)**

네.

오늘 큰 맘 먹고 온 거라, 이걸로 충분해요.

**이수**

(미소)

그럼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하는데)

**우진(05)**

(얼른)

묶는 게 잘 안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수, 우진(05)의 차에 함께 올라 끄끄 묶는 걸 돕는다.

**우진(05)**

(이수 보지 않고 가구 고정만 하며)

올드 티크가 좋아요, 집성목이 좋아요?

**이수**

네?

**우진(05)**

(쉬지 않고)

그럼 원목이 좋아요, 철제가 좋아요?

(또 뭔가 물으려고 하는데)

**이수**

둘 다 괜찮아요...

**우진(05)**

(매력적으로 씩- 웃는)

나도 그런데... 그럼 스테이크 아니면 초밥, 어느 쪽이에요?

**이수**

네?... 초밥이요.

**우진(05)**

맛있는 초밥집 알아요?

**이수**

여기, 골목길 지나면...

**우진(05)**

됐네. 타세요.

(이수 향해 미소 지으며)

나도 초밥 좋아하거든요.

**이수**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우진(05)**

좋아한다, 연애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수**

(살짝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은 감사한데... 오늘은 재고 정리를 해야 해서요...

(다시 미소)

**우진(05)**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저녁 시간이고 배고플 텐데...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이수**

(거절의 미소를 남기고 돌아서며)

마음만 받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수, 그냥 멀어진다. 그때,

**우진(05)**

저기요.

이수, 보면.

**우진(05)**

나, 오늘 그쪽한테 이 말 하려고 뽕 좀 보태서 100번은 연습했어요.



이수, 살짝 미소 짓더니 우진(05)에게 묻는다.

**이수**

왜 꼭 오늘이에요?

이수, 살짝 장난 어린 표정으로 우진(05)를 본다.

## 16. 초밥집 앞 (N)

세워진 우진의 차. 다소 불안한 눈빛으로 긴장해 있는 이수.

우진(05)가 도시락을 들고 차에 탄다.

**이수**

여기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우진(05)**

네.

**이수**

(안전벨트 풀며)

저... 저는 그럼 여기서 그만...

**우진(05)**

(갑자기 자기 주민번호랑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외우는)

이수, 보고만 있으면.

**우진(05)**

(답답한 듯, 자기 팔뚝에 번호 크게 적더니, 폰으로 본인 인증해서 보여주는)

자, 봤죠? 만일 내가 이상한 놈이라, 물론 난 절대 그런 놈이 아니지만...

사진 보내드릴게요. 번호가 뭐예요?

**이수**

(씩 웃으면서)

번호도 따시게요?

금세 기분 좋아진 우진(05), 차를 출발시킨다.

## 17. 상백의 공장 (N)

철문이 열리며, 문밖의 가로등 불빛이 캄캄한 공장 내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내 우진이 문을 닫자, 캄캄한 공장 안. 이수, 자기도 모르게 우진의 옷소매를 잡는다.

우진(05)가 스위치를 켜자, 환한 불빛 아래 가만히 잠든 가구 공장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수**

(놀라서)

여기... + 공장이죠?

궁정의 꼬덕임 보내며 뿌듯한 우진(05)의 얼굴.

**이수**

우리 실장님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꼭 입점 시키자 그러셔서, 제가 매일 엄청 보냈었는데...

싫다는 답도 한 번 없더라고요.

**우진(05)**

이수씨는... 안 좋아해요...?

**이수**

왜요, 좋아하죠. 한 사람을 위한 가구.. 멋있잖아요.

비싼 건 좀... 그렇지만.

**우진(05)**

그거야 어쩔 수-

(하는데)

**이수**

(우진 말 이어 받듯)

없죠.

사실 이 가격이면, 파는 게 오히려 손해일 때가 많을 정도로 이윤을 낮게 붙인 거잖아요.

**우진(05)**

그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이수**

그런데 여기 직원이에요?

**우진(05)**

네... 뭐 비슷해요.

(궁금해 하는 이수를 보며)

배고프다. 우선 밥부터 먹죠.

우진(05), 이수의 손을 이끈다.

CUT TO :

우진 가구의 신제품들이 완성된 걸 보여주는 우진(05). 이수, 상기된 얼굴로 기뻐한다.

의자를 빼주는 우진(05)

**이수**

이래도 돼요?  
(하며 앉는데)

**우진(05)**

안돼죠.

이수, 놀라서 앉다가 다시 일어선다.

**우진(05)**

(자연스레 앉혀주며)  
근데, 앤 괜찮아요.

이미 백 년도 넘게 사람 손을 탄 나무라... 티가 전혀 안 나거든요. 올드 티크!

이수가 우진(05)를 장난스레 흘겨보는데,

우진(05)는 테이블 위에 초밥을 셋팅해서 이수가 편히 먹도록 해준다.

이수가 밥 먹을 때 보이는 사소한 버릇까지도 알고 있는 듯 자연스레 챙겨주는 우진(05).

**이수**

(엑스자로 어색한 젓가락질 하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좀 웃기죠?

**우진(05)**

나도 웃겨요?  
(라며 이수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쥐어 보이는)

이수, 그제야 편히 젓가락질을 하며 초밥을 먹는다.  
그렇게 편한 두 사람. 즐거워 보인다.

CUT TO :

공장 곳곳을 누비는 두 사람.

드문드문 우진(05), 이수의 키 등의 신체 사이즈를 가늠해 본다. 이수가 마마스튜디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수가 보면, 얼른 모른 척 하는 우진(05).

CUT TO :

컵 안에 스마트 폰을 넣어 음악을 울린다.

달달한 음악과 그 음악의 비트 때문에 미세하게 이는 진동을 가만히 느끼는 두 사람.

**이수**

이렇게 들으니까 테이블 전체가 스피커가 된 것처럼 진동하면서... 좋아요.

**우진(05)**

(미소로 보는)

**이수**

진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접혀 있는 걸 펼치면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 탁자처럼...

**우진(05)**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처럼요?

**이수**

(상상해보더니)

그럼 좀 이상할까요...?  
근데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묻는 거...  
맘에 드는 여자한테 처음 말할 때... 스킵?

**우진(05)**

티 나요?

이수가 웃자, 우진(05)가 그녀를 귀엽게 본다.  
이때, 소리를 듣고 순찰을 온 경비원.  
두 사람 얼른 스마트 폰을 끄고 구석에 숨는다. 밀착된 두 사람. 가쁜 숨이 서로의 뺨에 닿는다.

**이수**

왜 꼭 오늘이에요?

**우진(05)**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진(05)와 이수 곧 키스라도 할 듯 서로를 뚱뚱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불이 짹 꺼지며 캄캄해진다.  
잠시 후,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우진.  
작은 불빛에 의지해 더욱 가깝게 앉아 서로를 보는 우진(05)와 이수. 서로 어색하다.  
이수가 얼굴을 우진(05)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간다. 우진(05), 기대하는 얼굴인데,

**이수**

(입술이 아닌 귤가에 대고)

배불러요. 이제 가요.

이수, 상기된 얼굴로 앞서 간다. 우진(05), 그런 그녀가 귀여운 듯 살짝 웃는다.

CUT TO :

캄캄한 실내. 스마트폰 플래시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걷는 두 사람.  
이수가 힘들어하자, 우진(05)가 조용히 손을 잡아준다. 손을 잡고 가만가만 걸어가는 두 사람.

## 18. 이수 의 집 앞 골목 (N)

앞선 이미지 이어지며,  
우진(05)와 이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다.  
이수가 멀리 자기네 빌라가 보이자, 발걸음을 멈춘다. 우진(05)가 자연스레 그녀 걸음에 맞춰 멈춰 선다.

**이수**  
(다시 웃더니)  
다 왔어요.

이수가 가려는데, 차마 그녀의 손을 놓지 못 하는 우진(05).

**우진(05)**  
저기... 전화...

**이수**  
주세요-.  
(미소)  
그럼...

이수, 총총히 걸어서 빌라 입구에 다다른다.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전, 돌아서서 다시 한 번 우진(05)에게 손 인사를 건네는 이수.  
우진(05), 그녀의 인사에 답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해 안타까운 표정이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자, 층층이 불이 켜지며 그녀가 집을 향해 가는 게 희미하게 보인다.

## 19. 이수 의 집 (N)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는 이수.  
주방에서는 이수 아버지가 설거지 중이고, 거실에서는 이수 언니인 은수가 스쿼트 중이다.

**이수**  
다녀왔습니다.

**이수 아버지**  
(설거지 하다)  
늦었구나. 밥은?

**이수**  
먹었어요. 엄청 맛있는 걸로.

이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간다.



**은수**

남자야. 냄새가 나.  
(하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는데)

**이수 父**

(은수 손 탁 쳐내며 다른 무알콜 저 칼로리 맥주 꺼내주는)  
일껏 운동해놓고... 그러지 말고 이거 마셔.  
알코올도 없고, 칼로리도 낮대더라.

**은수**

(정색하며)

아빠, 건 아니지.  
맥주가 왜 맥주야? 알코올이 있으니까 맥주지.  
(원래 마시려던 맥주 캔 따서 벌컥벌컥 마시고)  
이 맛이거든. 이거 마실라고 운동하는 거야.

누가 널 말리냐는 이수 父의 시선. 그러거나 말거나 은수는 맥주 원샷하고 스쿼트에 집중한다.

## **20. 이수네 욕실 (N)**

양치를 하며, 괜히 픽픽 웃는 이수.  
이때, 또로롱- 문자가 온다. 우진이다. '12시, 괜찮아요?'

## **21. 우진의 집 (N)**

또로롱- 메시지. 이수다. '퇴근은 6시예요.'  
우진(05), 답장한다. '네, 6시, 가게 앞으로 갈게요.'  
빙글빙글 웃으며, 침대 위로 털썩 쓰러지는 우진(05). 눈을 감았다가 다시 번쩍 뜬다.  
그리고는 분주한 움직임. 보면, 1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포진시켜 둔 여러 알람시계들이 있다.

**NA**

내일 저녁 여섯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녀가 기억하는 이 모습 그대로...

우진(05), 음악을 크게 틀고 창문을 열더니 스트레칭 한다.

**NA**

다행인 건, 잠도 안 온다는 거다...

씨익 웃는 우진(05)의 건강한 미소.

## **22. 몽타주**

- 마마스튜디오 부근.

하품하며 이수 기다리고 있는 우진(05). 다가오는 이수 보이자 우진(05)의 얼굴, 환해진다.  
그 위로 깔리기 시작하는 배경음악 이어지며. 둘만의 달콤한 데이트가 시작된다.

- 거리.

어색한 듯 가까운 듯 나란히 걸어가는 그들. 손등이 살짝살짝 스치면, 우진(05) 잡을까 하는데, 이수의 손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 전시회.

우진(05)가 안내하자, 이수의 놀란 얼굴.

이수, 미소 짓더니 자신의 가방 속에서 같은 전시회 브로슈어를 꺼낸다.

**우진(05)**

설마... 여기도 실장님이 좋아해요?

**이수**

아뇨, 여긴 제가 좋아해요.

전시회 곳곳을 돌아보는 두 사람. 비디오 아트로 꾸며진 공간, 둘만 서 있자 묘한 분위기.

마치 전 우주에서 두 사람만 있는 듯 한 느낌의 공간이다. 우진(05)가 이수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이수, 가만히 미소 짓는다.

- 가구벼룩시장.

이것저것 구경하는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있다.

두 사람, 손을 놓지 않으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요령껏 피하느라 바쁘다.

- 거리.

배경 음악으로 들리던, 음악이 거리 공연에서 연주되고 있다.

- 길게 줄 선 맛집 앞.

두 사람 앞의 줄은 짧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수 낙담하는데, 우진(05)가 갑자기 뛰어간다.

잠시 후, 포장을 해서 뛰어 오는 우진(05).

- 상백 공장.

처음 데이트처럼 단둘이 신제품에 앉아 맛있게 먹는 두 사람. 서로 더 먹으라며 투닥이다 웃는다.

**이수**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 사장님한테 안 혼나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우진(05)**

디자인해요...

이수, 살짝 놀라는데...

이때, 누군가 오는 소리. 두 사람, 처음처럼 숨는다. 보면, 상백이다.

**상백**

(통화하는)

있어 봐. 시제품 지금 가져간다니까. 오늘 화끈하게~

상백, 숨겨진 공간에서 뭔가를 꺼내면, 우진 몰래 만들어 팔고 있는 러브 체어다.

상백, 자기가 앉아서 직접 시연해 본다.

숨어서 이를 보는, 우진(05)의 묘한 표정.

이수, 저것도 디자인한 거냐는 듯 보면, 우진(05)는 절대 아니라고 도리질 친다.

상백, 뭔가 느낀 듯,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고...

두 사람, 때 아니게 상백과의 숨바꼭질을 한다. 두 사람 점점 가까워지고...

그때 상백이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나간다.

상백이 사라지자, 이수과 우진(05) 몹시 가까운 자세로 서로 어색해한다.

우진(05), 휴대폰으로 음악 켜더니, 지난 번 데이트처럼 테이블이 울리도록 한다. 배경 음악이 바뀌고...

- 도심 야경.

이수 집 앞으로 이어지며.... 아쉽게 헤어지는 둘.

**NA**

앞으로의 일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다.

또 내일을 약속했다.

- 우진의 집.

우진(05), 에너지드링크 페트병 채 마시며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다.

자꾸만 눈꺼풀이 감겨 오고, 다리가 엉켜 넘어질 뻔한 우진(05). 정신 차리려 애쓰며 전화 건다.

**상백**

(V.O)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잠도 못자게!

**우진(05)**

미안... 뭐 재밌는 얘기 없냐?

**상백**

(V.O.)

빨랑 디비 쳐 자 새까! 여자가 개 하나냐?

툭 끊기는 전화. 우진(05), 하품하며 러닝머신 레벨 수를 올린다.

## 23. 우진 母의 가게 (D)

땡그랑. 보면, 가게 문에 블라블라 인형이 만세 한 채 매달려 있다.  
수강생들과 뜨개질 뜨고 있던 우진 母가 보면, 우진(05)와 이수가 가게로 들어온다. 수척한 우진(05)의 얼굴.

**우진 母**  
어서 오세요.

**우진(05)**  
...구경 좀 할게요.

**우진 母**  
네, 그러세요.

이수, 갖가지 뜨개용품들을 신기한 듯 둘러보고

**이수**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우진(05)**  
(우진 母 보며)  
가끔 와요. 여기 오면 마음이 푸근해지거든요.

우진 母, 흐뭇한 얼굴로 우진(05)와 이수를 바라보다 어딘가 그늘이 진다.  
이수, 실 팔찌를 만지작거린다.

**우진(05)**  
소원 팔찌예요. 맘에 들어요?

우진, 은근슬쩍 자신과 커플 팔찌가 될 만한 걸로 골라준다.  
이수, 이를 알아차린 듯 미소 짓는다.

## 24. 버스 정류장 (N)

반쯤 눈이 감긴 우진(05), 이수 손잡고 걸어온다. 서로의 손목에 묶인 한 쌍의 소원 팔찌.  
우진(05) 착잡한 얼굴로 이수를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수의 손을 꽉 잡는다. 문득 걸음을 멈추는 이수.

**이수**  
오늘은 내가 바래다줄래요.

우진(05)가 무슨 소리가 하고 보면.

**이수**  
지금 우진씨, 며칠 잠도 못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여요.

혼자 돌아가다가 중간에 쓰러질 거 같아요, 꼭.

**우진(05)**

(웃으며)

괜찮으니까 집 앞까지 가요.

우진(05) 손잡고 이끄는데, 이수 머뭇거린다.

**우진(05)**

나 진짜 괜찮아요.

두 사람, 잠시 서로를 본다.

**우진(05)**

(미소 지으며)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내일은?

**이수**

내일은... 엄마 기일이라 일찍 들어가야 돼요.

(버스 다가오자)

전화할게요.

이수, 도착한 버스에 서둘러 오른다. 자리에 앉는 이수.

우진(05) 안타까운 얼굴로 보다가, 막 출발하려는 버스에 다급하게 올라탄다.

이수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진(05). 못 말리겠다는 얼굴로 그를 보는 이수.

**우진(05)**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내일 아침 같이 먹어요! 9시쯤, 내가 갈게요!

CUT TO :

이수 집 앞. 그리고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 두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보면, 달콤한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 오렌지 빛 나트륨 등 아래로 다정한 두 사람의 그림자...

## 25. 지하철 안 (N)

한산한 지하철 안. 우진(05)가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아 가고 있다.

잠시 후 앞에 앉아 있던 승객 일어서자, 유리창으로 피곤에 찌든 우진(05)의 모습이 보인다.

잠시 즐기라도 한 듯 괴로워하며 마른세수를 하는데, 메시지가 온다.

확인하면, 실팔찌를 한 이수 손목 사진이다. 우진(05), 미소 지으며 자기 팔목의 실팔찌도 본다.

## 26. 은수 방 (N)



얼굴에 나란히 시트 팩을 붙이고 누운 자매, 은수와 이수.  
이수, 자기 팔목에 실팔찌 보며 혼자서 배슬배슬 웃고 있다.

**은수**

쟤냐?

(놀라서 일어나려는 이수 눕혀주며 서랍 열어 뭔가 툭- 던져주는)  
어렵게 구한 거 특별히 주는 거야. 요긴하게 써.

**이수**

이게 뭔데?

**은수**

페미돔.

**이수**

페미...?

**은수**

콘돔, 페미돔. 이 청소년아!

**은수**

(얼굴 붉히며)

우리 아직 그런 거 아니야.

**은수**

그러니까, 딱 지금이지.

봐. 막 좋아졌어, 사랑 같이 기분이 막, 응? 몽글몽글 막 그래,  
근데 그러다 막상 딱 잤는데 애게? 뭐시시~ 그럼 어쩔래?

**이수**

설마...

**은수**

설마는 늘 사람을 잡지.

다시 나란히 누워 팩 붙인 자매.

**은수**

많이 좋냐?

**이수**

... 설레... 참엔 좀 이상했는데, 좋은 사람이야. 가구도 좋아하고...

어느 새 코고는 은수. 이수가 자기 얼굴에서 다 마른 팩을 떼더니, 은수 팩도 떼 준다.

## 27. 지하철 종착역 (N)

여자 청소부, 빗자루 들고 청소중이다. 청소부, 고개 푹 숙인 채 잠들어있는 우진에게 다가간다.

**청소부**

총각, 일어나요.

(툑툑 치며)

총각!

소스라치듯 잠에서 깨는 우진. 의아하게 보는 청소부.

우진, 고개 들면 파이터 인상의 근육 남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창에 비친다.

우진(06 / 남 / 30대 중반 / 파이터 남)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와 동시에 후드득 바지 지퍼가 터진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입이 썩 벌어져 보고 있으면, 우진(06)은 아무렇지도 않게 응급처치를 하며 걸어간다.

헐크 바지처럼 허벅지 부분이 터질 듯한 그의 바지. 길어도 한 주먹은 땡강하니 짧다.

## 28. 상백의 차 (밤)

상백 운전 중이고 우진(06)은 옆자리에 타 있다.

**상백**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뭘 그렇게 고민해.

**우진(06)**

이번엔 좀 달라. 전화번호를 지울 수가 없네.

**상백**

그냥 지우시고, 잊으시고, 얼굴 또 좋을 때 찾으시고... 응? 오케이?

물끄러미 뭔가를 생각하는 우진(06).

**상백**

먹고 자고 싸고 하고... 그건 본능이고.

변치 않는 사랑? 그건 허영이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본능에 충실한 것들이고... 생긴 대로 살자, 응?

신호에 걸리고, 슬쩍 우진(06) 보더니

**상백**

뻘한 결말 알면서 길도 아닌데 뛰지 말자! 응?

착잡한 얼굴의 우진(06), 말없이 창밖 바라보고 있고.

## 29. 마마스튜디오 (D)

전화를 하며 혹시나 하며 밖을 보는 이수. 신호음 이어지면,  
진동하는 전화. 보면, <홍이수> 라고 화면에 뜬 전화를 짹 움켜쥔 채 받지 않는 우진(06)이다. 이때,

**직원**

(이수에게)

언니, 수습직원 모집 공고 지금 붙일까요?

**이수**

그러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리크루트 사이트에도 올리고...

**직원**

네...

그 사이, 이수의 전화 너머로 소리샘 메일로 넘어가는 기계 음성이 들린다.  
이수, 한숨 쉬며 전화를 그대로 끊는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면, 시간은 어느 새 11시가 넘어가고 있다.  
이수, 다시 우진에게 전화를 하려다 만다. 그러다, 우진(06)과 눈이 마주치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우진(06), 이수가 자신을 향해 손님에게 보내는 예의의 미소를 보내오자, 아픈 마음으로 돌아선다.

## 30. 우진 집 (N)

터덜터덜 골목길을 걸어가는 우진(06). 그를 향해 쫓는 강아지... 그 위로, 울리는 전화 진동...

## 31. 이수의 일상 몽타주 (D → N)

- 이수, 우진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누르려다 다급히 끊어버린다. 답답한 듯 길게 한숨 내쉬는 이수.  
그런 그녀를 보다 시선을 돌리는 누군가.

- 손님을 응대 하는 평범한 이수의 얼굴. 계산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 손님.

- 땡그랑, 문을 여는 종소리가 들리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보는 이수.  
그러나 우진이 아니라 수습직원 지원자들이다. 그녀는 실망이 담긴 얇은 한숨을 쉰다.

- 가구를 손님과 함께 들어 차에 실어주는 이수. 멀어지는 손님의 차를 보며, 우진을 떠올린다.

- 퇴근길. 이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그 뒤를 가만히 따르며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움직임들...

이수 문자 창을 열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그녀. 때마침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칠 찰나, 뒤에서  
툭- 밀면서 나오는 사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린다. 잠시 후, 자신의 전화기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수.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시선... 문자 도착음이 울린다. 문자 확인하는 화면 이어지며,

### 32. 우진 집 (D)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우진. 이수의 오타 메시지다.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님... 제가 싫어졌...&\*&' 답장을 하려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우진. '미안해요. 갑자기... (지우다가) 싫어지다뇨... 그게 아니라... (지우고)... 우진, 뭔가 결심한 듯 문자를 보내는 대신 종이 위에 무언가를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종이를 넘기는 손, 털 많은 남자 손으로 변했다. 우진, 계속해서 스케치 하고, 그의 손이 시시각각 변한다.

### 33. 상백의 공장 (D)

우진(몽타주-남/녀)의 뒷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스마트 폰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보면, 이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목록. 가득하다. 그 위로,

**상백**  
진심이냐?

우진이 보면.

**상백**  
(우진의 디자인 스케치 보며 괜히 툴툴)  
언젠 싫대메?

**우진(몽타주-남/녀)**  
싫다고는 안 했어. 그냥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자 그랬지.

**상백**  
이거나 저거나. 옆으냐 뒤집으냐. no! 했던 건 맞잖아.

**우진(몽타주-남/녀)**  
(상백 앞에 있던 스케치한 종이 가져오며)  
그래서 너도 no라고?

**상백**  
(스케치 종이 얼른 다시 뺏으며)  
아니지, 당연히 go지, 나는.

**우진(몽타주-남/녀)**  
대신 조건이 있어.

우진(몽타주-남/녀)의 표정.

### 34. 마마스튜디오 (D)

배달되어 오는 가구들. 우진의 + 가구들이다.

**실장**

역시 홍이수, 능력 있어. 다들 보고 좀 배워.

이수, 그저 가만히 미소 짓는다.

**실장**

암튼... 좋다~. 우리 가게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뉴 시리즈라니까 더 좋아.

그때, 이수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 이수는 그 가구를 쓸어 보며 눈을 떼지 못 한다.

이수, 상백의 공장에서 우진과 자신이 대화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 마음을 담아 꼼꼼히 가구를 보는데, 테이블 사용 기준인 표준 체형이 적혀 있다. 이수의 체형이다.

이때, 옆에서 말을 건네는 이수 또래의 여자 수습직원1.

**수습 직원**

선배님, 한 번 앉아보세요. 딱 표준체형이신 거 같은데...

**이수**

저보단 손님들 앉아보시게 해야죠. 오픈 전에 배치부터 제대로 할까요?

**실장**

그래, 이수야. 니가 수습 직원들 잘 좀 가르쳐.

(수습 직원들에게)

많이 배워서, 3개월 뒤에 다 같이 정직원 계약하자구요.

하고 가는 실장.

이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

CUT TO :

우진의 + 테이블에 음악을 트는 손길. 잠시 후, 가게 안에 공장 첫 데이트 때 들었던 음악이 퍼진다.

이수, 무심히 돌아보면 수습 직원과 눈이 마주친다. 수습 직원의 불안한 눈길. 유난히 긴장되어 보인다.

가만히 울려 퍼지는 음악 들으며 각자의 할 일 하는 두 사람.

**이수**

먼저 퇴근해도 되는데... 괜히...

**수습직원**

둘이 해야 빨리 끝나죠.

**이수**

(수습 직원에게 고마운 미소 보내며)

우리 환영회 아직 못했죠? 조만간 맛있는 거 먹어요. 내가 살게요.



**수습직원**

오늘은 어떠세요?

**이수**

(미소)

우선 내일, 점심부터 함께 먹어요.  
저녁이랑 술은 그 뒤에 천천히, 어때요?  
(소품을 건네는)

이 조명, 저쪽 테이블 위에 셋팅 좀 해줄래요?

수습 직원, 뭔가 생각에 빠져있다 소품을 미처 건네받지 못하는데... 이수가 당황한다.  
그런데 소품이 바닥에 떨어지려던 찰나, 몸에 상처가 나면서도 소품을 구하는 수습직원.

**이수**

(놀라서 달려가)

안 다쳤어요?

**수습 직원**

괜찮아요...

**이수**

피가 많이 나는데... 지혈부터 좀 하고, 병원 가요.  
(구급상자 가지러 가려는데)

**수습 직원**

(잡는)

아니 괜찮아요...

이수가 수습 직원을 본다. 수습직원, 팔에 난 상처보다 발목을 삐끗해서 심하게 부어올라있다.

**이수**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수습 직원**

아니예요. 진짜 괜찮아요.

**이수**

(발을 보며)

이렇게 부었는데 어떻게 혼자 가요...

수습 직원, 이수를 본다.

### 35. 우진의 집 앞 (N)

수습 직원이 이수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앞으로 온다.

여전히 많이 긴장한 수습 직원, 그녀는 바로 우진(07 / 여 / 20대 중반 / 수습직원)이다.

**우진(07)**

손님이 오는 건 처음이에요...

우진(07) 문 열어주면, 이수가 살짝 긴장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선다.

### 36. 우진의 집 (N)

어색해 하는 이수.

**우진(07)**

(소파 권하며)

부축해서 오느라 힘드셨죠?

우선 좀 앉으세요... 마실 거 드릴게요.

**이수**

아니에요. 환자한테 무슨 대접을 받아야. 그냥 쉬세...

곳곳에 + 가구들, 그리고 마마스튜디오에서 사 모은 가구들이 보인다.

뭔가 낯선 분위기를 느낀 이수.

**우진(07)**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수씨 가게에서 사온 것들이고...

**이수**

(의아한 시선)

**우진(07)**

(결심한 듯 깊이 심호흡 하며)

이제부터 믿기 힘든 애길 할 거예요.

이수씨가 들어주면 좋겠어요...

간절한 우진(07)의 눈빛. 이수, 말없이 자리에 앉는다.

**우진(07)**

이수씨... 전 수습직원 한채경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스튜디오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됐어요. 집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말하면 더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저예요. 우진이...

**이수**  
(당황하여)  
네?

**우진(07)**  
한채경이 아니라 김우진이라고요. 초밥.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주절주절 말하고...)

황당한 얼굴의 이수.  
그 앞에 우진(07)이,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녹화되었던 영상들을 보여준다.  
이수와 만났던 우진들이 차례로 보인다.

**이수**  
뭐예요?...이게 다?...

**우진(07)**  
다...나예요...

**이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진(07)**  
의자 얘기를 나누던 것도, 공장에서 데이트를 했던 것도,  
좋아하는 가군데 안 팔려서 반품해야겠다고 고민한 가구를 구입한 것도,  
맛집 줄을 대신 서준 것도...  
전부 다 나예요.

대사와 함께 했던 모습들의 우진들이 녹화된 영상에서 나온다.  
처음 만났던 중년남 우진(04)부터 삼일을 함께 보냈던 우진(05),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수 곁을  
맴돌며 그녀의 일상에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던 다양한 우진들...

**우진(07)**  
나는... 자고 일어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멍한 이수.

**우진(07)**  
이수씨... 괜찮아요?

이수는 계속 말이 없다. 그저 낯선 듯 우진(07)을 멍하니 보고만 있다.

**우진(07)**

지금 한 얘기들... 이 상황... 다 믿을 수 없다는 거,  
다 이해... 해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하며 이수에게 한 발 다가가는데)

**이수**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그만.

우진(07), 순간적으로 상처 받은 얼굴이 된다.

**이수**

나한테 왜... 이래요?

**우진(07)**

전 그냥...

**이수**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신... 아니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설마... 스토키...?

**우진(07)**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한 사람이에요. 이수씨를 좋아하는... 이수씨가 못 알아보는 것뿐이지...

**이수**

...

**우진(07)**

늘 나왔어요...

**이수**

(더욱 혼란스러워)  
그냥... 나는...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난 그냥...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우진(07)**

(답답하고 속상한)

저기, 이수씨...

이수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인사도 없이 그대로 황망히 사라진다.

우진(07), 차마 그녀를 따라가지 못 하고 제 자리에 서있다.

NA

내 얘기를 들은 그녀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처음 얼굴이 변하던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그랬고,

컴퓨터 화면에 담기는 우진(07)의 얼굴.

### 37. 뜨개질 가게 / 상백 공장 (D)

- 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NA

변해버린 날 본 우리 엄마가 그랬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얼굴에 환한 미소.

-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상백의 모습.

NA

상백이 마저도 그랬다.

### 38. 우진의 일상 몽타주

- 알람이 울린다. 보면, 이미 잠에서 깨서 눈을 깜빡이고 있던 우진. 침실. 또 다른 인물이다.  
우진(몽타주-남/녀)의 팔과 다리에는 이수가 매준 붕대. 때 타고 헐거워져 저절로 풀리고 만다.  
이를 보는 안타까운 눈길.

NA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다.

- 알람을 끄고, 침대 정리를 하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면도와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손톱을 깎고, 시력 검사, 신체 치수를 체크하고 옷을 골라 입고 작업실로 내려가는  
우진(몽타주-남/녀). 그러나 평소와 달리 무성의하고 무기력해 보인다.

- 라운지 바. 상대가 말을 걸어와도 대꾸 없는 우진(몽타주남). 사람들 속에서 술만 마신다.

- 상백의 공장. 이수과 함께 했던 곳에서 넋을 놓고 앉아 있다.  
이때, 우진(몽타주남)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손길. 상백이다. 우진(몽타주남)의 매서운 눈길이 상백을  
향하면.



**상백**

그래. 그 눈빛, 그거거든.  
그게 바로 니 솔직한 고백에 대해 뒤통수 치고 내뺀 여자한테 보내야 하는 눈빛이거든.  
하나 밖에 없는 이 친구한테가 아니라.

**우진(몽타주남)**

... 놀라서 그런 거야.

**상백**

난 뭐 안 놀랐게?

**우진(몽타주남)**

...

**상백**

사랑? 그거 그냥 호르몬 파티야.  
아무리 뜨겁게 달아올라도 길어야 삼개월인데, 우리 제발 이 뜨거운 청춘을 그 따위에 낭비하지 말자.

**우진(몽타주남)**

사람들 눈엔 난 괴물 같고 무섭고 그렇겠지...?

**상백**

그건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 넌 영웅이다. 와 씨... 얼마나 좋냐.  
내가 너라면 의자 만드는 대신 의자왕 될 거다. 부러운 새끼...

우진(몽타주남), 상백의 싱거운 소리에 피식 웃는다.

상백, 우진(몽타주남)이 시선을 돌리는 틈에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다.

### **39. 마마스튜디오 (D)**

이수, 가게 가구들을 정리 중이다. 한 손님, 그녀에게 뭔가 물어려다 그냥 가게를 나가버린다.  
그 사이 그녀, 아무 생각 없이 정리 중인데, 문득 보면 우진의 가구다. 그때,

**손님**

저기... 여기서 의자를 샀는데, 거기 맞는 걸 찾고 있어요.  
벗나무로 만든 벽돌색 의잔데-

이수, 혹시나 하는 시선으로 손님을 본다.

**이수**

우진씨...?

**손님**

(원 소리냐는 듯)

네?

**이수**

죄송해요. 제가 착각 했나 봐요. 죄송해요...

손님,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보는데,  
이수의 표정이 혼란스럽고 괴로운 듯 흔들린다. 이때, 그녀를 아는 척 하는 손길.  
이수, 돌아보면. 언니 은수가 있다.

#### **40. 백화점 (N)**

아빠 옷을 쇼핑 중인 이수와 은수.

이수, 쇼핑엔 관심 없고 휴대폰으로 '자고 나면 얼굴이 변하는 병이 있나요?' 등으로 구글링을 해보고 있다. 나오는 게 없다. 그때,

**은수**

이건 어때?

**이수**

(영혼 없이)

좋아.

은수가 이수 전화를 훑쳐보면,

**은수**

뭐냐... 스토커 같은 이 짓은. 그렇게 좋냐?

**이수**

궁금은 해... 정말 왜 그랬을까...?

그 사람 말, 진짜까? 그 사람 얼굴이... 정말...

(하다가 입을 다무는)

**은수**

얼굴이 뭐? 설마... 대머린 거 숨기디?

**이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은수, 이수를 빤히 본다.

이수, 혼자서 생각하더니 은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 은수

음... 이 언니가 보기엔 말야.. 너 그 사람 좋아해. 근데 뭘 알고 싶은 거야?  
진실이야, 진심이야?

이수, 은수의 말에 뭔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얼굴.

### 41. 몽타주 (N/D)

- 이수의 방. 생각에 잠긴 이수.
- 마마스튜디오. 손님이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는 딴생각을 하고 있다. 이수의 손에 들린 홀로그램 전단. 쳐다보면 여러 명의 사람 얼굴로 변한다. 가만히 보는 이수.
- 버스 안.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이수. 정거장을 놓치고 만다. 뒤늦게 지나버린 정거장을 보며 이수는 뭔가 생각이 깊은 얼굴이다.
- 마마스튜디오 주차장 앞에 서서 우두커니 뭔가를 생각하는 이수.
- 초밥집 간판이 보이고 그것을 쳐다보는 이수
- 이수집 앞. 누군가(남자)가 서있다. 쳐다보는 이수. 혹시... 그러나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가버리는 남자. 이수, 실망하는 눈치다.
- 창문이 환한데... 침대에 누워 뭔가를 생각하는 이수. 수심에 가득 찬 표정.

### 42. 우진 집 골목 (N)

자신도 모르게 우진 집 앞에 와서 선 이수.  
불 꺼진 우진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돌아선다. 그때, 그 위로, 킁킁 짓는 강아지.  
우진 동네 편의점 강아지다. 그 옆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발. 그리고 놀란 듯 말갈게 보는 이수의 시선.  
그 위로 빠르게 흘러나오는 중국어. 보면, 중국 미인의 모습을 한 우진(08 / 여 / 30대 초중반 / 중국미인)이 있다.  
이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어찌지 하는 표정이 된다.

## 이수

저... 전, 김우진씨를 찾아왔어요...

우진(08), 자신이 그 우진이라며 긍정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보낸다.  
잠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 여자. 그 뒤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 43. 우진 집 거실 (N)

어색하게 떨어져 앉은 우진(08)과 이수. 서로 말이 없다.  
이수는 그의 집안 풍경을 가만히 둘러본다.  
그 사이, 우진(08)이 어색해서 자세 바꾸다, 이수를 건드린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흠칫하는 이수.  
두 사람, 서로가 미안해한다.

## 우진(08)

(영)

차... 마실래요?

고개를 가로 찢는 이수.

**우진(08)**

(영)

그럼 뭐 다른 거라도...?

이수, 다시 고개를 찢는다. 그리고는 우진(08)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이수.

**이수**

진짜 우진씨... 맞아요?

**우진(08)**

(영, 가만히)

네, 맞아요.

이수, 그를 계속 보기만 한다.

우진(08), 그녀의 시선에 어색하게 미소 짓는다.

**우진(08)**

(영어)

이상... 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이수.

우진(08), 너무 솔직한 이수의 반응에 당황한다.

**이수**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죠?

**우진(08)**

...

**이수**

(대답이 없자, 얼굴 붉히며)

아닌가...

**우진(08)**

(영)

아뇨, 좋아해요.

이수,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다가 어색하게 다시 표정 굳힌다.

다시 긴장이 되는 듯 심호흡을 하더니, 말을 잇는다.

**이수**

그럼 자요, 우리.

그녀의 느닷없이 도발적인 제안에 당황해서 놀라는 우진(08).  
우진(08), 표정.

**이수**

... 보고 싶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우진씨 모습.

이수, 말을 끝낸 후 긴장된 듯 흑- 심호흡을 뱉는다.  
그러자 우진(08)의 얼굴 위로 조심스레 퍼지는 미소. 아프면서도 좋은...

#### **44. 우진 침실 (N)**

까만 밤 아래 놓인 우진 집 전경.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CUT TO :

우진의 침대에 서로를 향한 채로 나란히 누운 우진(08)과 이수. 눈을 감고 있다.  
우진(08), 가만히 눈을 뜨고 잠든 듯한 이수를 본다. 그러다 눈을 감는다.  
이수 역시 조용히 눈을 뜨더니, 잠든 듯한 우진(08)을 본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잠시 후, 동시에 눈을 뜨는 우진(08)과 이수. 서로를 보고 웃는다.

**이수**

왜... 아니,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우진(08)**

(영)

18살. 그 후론 쪽- 그래. 왜 그런지는... 그때도 지금도 몰라요.

쓸쓸한 미소의 우진(08).

**이수**

변하거나 할 때, 아프진 않아요?

**우진(08)**

(영)

글쎄... 늘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어서...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이수**

(다행이라는 듯 안도하더니 다시 궁금한 얼굴로)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 그 주민번호 사실이에요?



**우진(08)**

(고민하다가)

31살. 주민번호는 맞구.

**이수**

그럼 죽지도 않는 거예요?

**우진(08)**

(웃으며, 영)

안 죽어봐서 모르겠네.

**이수**

근데 왜 반말해?

**우진**

내가 오빠잖아.

이수, 피식 웃는다.

**이수**

(밝게)

좋은 건 없어?

**우진(08)**

(영)

글쎄... 잘생긴 날 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

**이수**

(짐짓 뽀족해져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얼굴로... 그럼 난 대체 몇 번째야?

**우진(08)**

(영, 곰곰이 고민하는)

글쎄... 세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네.

**이수**

나 갈래.

**우진(08)**

(영)

근데 삼일이나 잠 안 자고 같은 얼굴로 데이트한 건 처음이야.

**이수**  
거짓말.

**우진(08)**  
(영)

그리고 엄마, 상백이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다는 거 말해 본 적도 처음이야.

이수, 우진(08)의 아픔이 느껴지는 듯 축축한 눈길로 말갈게 본다.  
이수의 부드러운 표정.

**이수**  
또 얘기해줘.  
언니 (고개를 막 흔들더니) 오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이수를 바라보는 우진(08)의 눈길. 그 위로,

**이수**  
(V.O)  
일어났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우진(08)**  
(영)  
다시 자.

**이수**  
(V.O)  
잠이 안 오면?

**우진(08)**  
(영)  
상추도 먹고 우유도 데워 마시고...  
진짜 빨리 자고 싶을 땐,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봐.  
(사이, 이수를 보면)

눈 감은 이수의 얼굴 위로, 고롱고롱 숨소리...  
암전.

#### 45. 우진의 침실 (D)

가만히 잠에서 깨는 이수. 가만히 맞은편을 바라보는데,  
웬일로 우진(08)은 잠든 채다. 어제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은 우진(08), 중국어로 잠꼬대도 한다.  
이수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한 후, 우진(08)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침대를 빠져나온다.

CUT TO :

우진의 욕실.

욕실 선반에 가지런히 배열된 다양한 제품들. 여성용 제품과 남성용 제품 등이 골고루 있다.  
이를 보는 이수희의 시선.

CUT TO :

우진 옷장.

시력 측정 안경, 발 치수 기계, 다양한 사이즈의 옷들, 하이힐, 구두, 운동화 등 남자와 여자의 여러 소품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려지는 옷장을 살펴보면, 그의 특별한 일상이 현실임을 느끼는 이수.

그녀가 안경을 쓰고 시력 검사를 하고,

발 크기를 재는 도구에 자기 발을 대본다. 몹시 낯은 이음새를 통해 그의 고민이 전해지는 듯 하다.

CUT TO :

우진 작업 공간.

마마스튜디오에서 사간 가구들과 우진의 드로잉 북에 그 사이 이수를 지켜보며 스케치한 듯한 그림들이 있다.

이수, 이것들을 눈길로 가만가만 훑어 본다.

CUT TO :

알람 소리. 눈을 뜨는 우진. 우진의 시선으로 전경이 펼쳐지며, 그가 변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의 시선에 이수가 사라진 빈 자리가 들어온다.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침실을 나서는 그.

## 46. 우진의 거실 (D)

이수, 평소 우진처럼 그의 소파에 앉아 컴퓨터에 기록된 그의 과거를 보고 있다.

이수의 기억 속에 저장된 다양한 모습을 한 우진의 편린들이 함께 지나쳐 간다.

데이트 신청을 했던 우진(05)의 모습으로 녹화한 장면이 나온다. 이수희와 데이트를 하고 남긴 들뜬 고백들...

이수, 미소 짓는다. 이때,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진(09)**

(V.O)

잘 잤어?

꽤 달콤한 남자의 목소리다.

**이수**

(조용히)

우진씨...?

두근두근, 이수 차마 돌아보지 못 하고 있는데,

모습이 변한 우진(09 / 남 / 20대 초중반 / 호감남)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그녀 앞, 테이블 위에 앉는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호감을 주는 우진(09).  
이수가 그를 보고, 가만히 웃는다.

**우진(09)**

낮설지?

**이수**

(쳐다보기만)

**우진(09)**

보니까 어때?

**이수**

생각보단...

우진씨 맞는 거죠?

**우진(09)**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주절주절 외우고)

**이수**

(빙긋 웃는다)

**NA**

이수는 우리가 사귀다면 자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과 연애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다.  
난 이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위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긴 그림자를 만든다.

## 47. 우진의 일상 몽타주

- 익숙한 알람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동 없는 우진(몽타주-남/녀)의 등짝.  
보면, 깨어 있는 우진이지만 빙글빙글 웃고 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 폰이 들려 있다.  
띠릉. 우진의 sns메시지 알림이 울리자, 얼른 창을 확인한다.  
이수가, 가게 매장에서 우진의 테이블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온 것.  
우진(몽타주-남/녀), 알람을 끄고 이수과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 파자마를 갈아입고, 양치를 하고, 시력을 확인하고, 발치수를 재고, 옷을 입고,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늘 하루 자신의 모습을 디테일 하게 이수에게 알려준다.  
키 얼마, 시력 얼마, 몇 살 가량, 성별 등등...
- 이수, 우진이 보내준 사진을 받아 보고는 웃는다.

## 48. 데이트 몽타주

- 마마스튜디오.

낮선 얼굴을 한 남자가 이수와 처음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풍긴다.

이수, 우진이라 확신하고 장단을 맞춘다. 그런데 그 남자 그런 이수를 이상한 사람처럼 본다.

이수, 이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손님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이수는 또 다른 손님을 응대한다.

CUT TO :

아까 손님이 산 가구를 계산해주는 이수. 손님이 기계에 사인을 한다.

이수가 보면, 영수증에는 사인 대신 작업 멘트가 쓰여 있다. '데이트 할래요? 오늘!'

손님인 척 시침 똑 떼고 있던 우진(몽타주남)이 이수를 보고 웃는다.

**이수**

(싱긋 웃으며)

못됐어.

**우진(몽타주남)**

(웃으며)

미안...

서로를 보고 웃는 이수와 그날의 우진.

- 타투가게.

어깨에 새겨지고 있는 이수의 얼굴. 문신하고 있는 우진(몽타주 남)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는 이수.

**이수**

안 아파?

**우진(몽타주남)**

살에 재봉질 하는 느낌?

**이수**

으... 그런데 왜 하는 거야?

**우진(몽타주남)**

(웃는다.)

**이수**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텐데...

**우진(몽타주남)**

그래서 별로야...?



**이수**

아니, 이쁘긴 해.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하트도 넣자.

**우진(몽타주남)**

(의외라는 듯)  
나 아픈 거 별로라며.

**이수**

그래도 시작했으면, 완성은 해야지.

- 극장. 이수가 혼자 자리에 앉아 있다.  
옆자리의 한 남자가 계속 이수 쪽을 힐끗거린다. 그러다, 마침내 말을 건넨다.

**헌팅 남**

저기요.

그때, 이수와 남자 사이를 뺨뚱히 비집고 나오는 얼굴 하나.  
스무살 남짓한 외모의 예쁜 여자로, 그는 다름 아닌 우진(10 / 여 / 20대 초반 / 예쁜 여자)이다.

**우진(10)**

(양손에 팝콘과 음료를 들고)  
네, 여기요. 이분, 남자친구 있거든요~!

이수가 우진의 극성을 부끄러운 듯 말리는데,

**헌팅 남**

다행이네요, 이모님 애인이 있으시다니. 그럼 우리 조카 소녀는 남자친구 없죠?

**이수**

(뺨쪽해져서는)  
앤 여자친구 있어요.

**우진(10)**

(이수의 질투가 귀여운 듯)  
맞아요. 나 여자친구, 아니 여자 애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둘 다 정상은 아닌 거 같다는 듯 보는 헌팅남.  
그러거나 말거나 둘이서만 서로 좋아죽는 이수과 우진(10).

- 속웃가게.

속옷을 함께 고르고 있는 두 여자, 이수와 우진(10)이다.

**우진(10)**

에이... 아니지. 그것보단 이게 훨 편해. 이걸 와이어가 신소재라서 부드러거든.  
(흔жат말)

아... 이걸 뽕을 못 넣는구나.

이수, 민망해서 시선 돌린다. 괜히 미안해진 우진, 이것저것 골라준다.

**우진(10)**

그것보단 이게 어울려. 아님 이거.

이수, 그걸 보더니 픽- 웃음 터진다.

**이수**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취향이시겠죠.

**우진(10)**

에이, 그러지 말고 일단 입어 봐.  
둘 다 딱 하면, 한 컵, 아니 두 컵이나 커져. 내가 해봐서 잘 알아.

**이수**

솔직히 말해 봐요. 그럼 입어볼게.  
이런 스타일 속옷 좋아하지?

**우진(10)**

응, 좋아해.

이수, 탈의실로 들어간다.

우진(10) 뒤따라가려는데, 코앞에서 탁 닫힌다. 아쉬움에 입맛을 켜 다시는 우진(10).

- 황학동 뒷골목 같은 허름한 중고가게들... 우진(태양)과 이수가 중고물건들이 신기한 듯 보며 데이트 중이다. 낡은 풍금을 발견한 그들. 이수가 건반을 눌러보자, 음계가 반음 정도 틀어진 소리가 난다. 그러자 옆에서 화음을 넣듯 건반의 원래 음을 잡아주는 목소리. 우진(태양)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는 이수과 노래를 부르는 우진(태양).

노래 소리 커지며, 그 위로 여러 우진과 이수의 데이트 장면들이 이어진다.

- 횡단보도 앞. 우진(몽타주남)과 이수가 서 있는데 갑자기 이수가 눈을 감는다. 파란불로 바뀌자 나서려는데 이수가 가만히 있자 우진(몽타주남), 이수를 본다.

**우진(몽타주남)**

왜?

**이수**

(눈을 감은채)

그냥 익숙해지고 싶어서 그래.  
얼굴은 계속 달라지니까... 다른 걸로 익혀두려고....  
곁에 있기만 해도 익숙한 그런 거...

우진(몽타주남), 물끄러미 이수를 쳐다보면,

**이수**

눈으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거 말고 뭔가 오빠를 알 수 있는...

**우진(몽타주남)**

(손을 잡는다.)

**이수**

(이수 눈을 뜨고 보면)

**우진(몽타주남)**

(손을 더 꼭잡으며)

이렇게... 누군가 니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게 나야.

(미소)

그리고 걱정 마. 니가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찾을 테니까.

이수 씩 웃는다.

두 사람, 발걸음을 맞춰 걷는다.

## **49. 회현 상가 (N)**

나란히 상가를 걸어오는 두 사람.

은화 가게에서 각자 태어난 해의 은화를 골라 사고, 두 사람이 데이트 했던 날 들었던 음악 LP도 산다.

CUT TO :

뜨개질 가게 앞.

창 너머로 우진 母가 손님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진(10)의 시선. 이수가 보면,

**우진(10)**

사실... 여기 우리 엄마 가게야... 저기 저분이 우리 엄마고.

이수, 놀란 얼굴인데.

그 사이, 우진(10)이 불라블라 인형을 만세를 시키자, 방울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 밖을 보는 우진 母. 우진(10)과 우진 母, 서로 미소 나눈다.

## 50. 뜨개질 가게 안 (N)

우진 댘와 함께 있던 손님이 인사를 하고 간다. 나가면서 우진(10)과 이수를 잠시 보는 손님.

**우진 댘**  
(채근하듯)  
안녕히 가세요.

**우진(10)**  
요즘 장사 잘 되나 봐. 맨날 손님이 있어.

우진 댘, 우진 옆에 서 있는 이수를 본다.

**이수**  
(공손하게 꾸벅)  
안녕하세요, 홍이수예요.

이수를 보는 우진 댘의 표정.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에 앉는 두 사람.  
우진(10)이 떡볶이 봉지를 펼쳐놓고 쿨피스를 따서 이수를 주자, 이수는 우진 댘에게 준다.  
우진(10) 아차 하는 표정으로 다시 얼른 하나를 따서 이수를 준다.  
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우진 댘. 그 한편에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친다.  
어색한 분위기. 이때, 테이블에 놓여 있는 스웨터를 보는 이수. 아직 미완성이다.

**이수**  
우와, 이거 어머니가 뜨고 계신 거예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우진 댘**  
(우진의 시선에 바구니에 행거 놓으며)  
그냥, 부탁으로... 손님... 거야.

**이수**  
어머니, 저 뜨개질 좀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을 보는 우진 댘의 시선. 이어지면,

CUT TO :

난감함과 짜증이 교차하고 있는 우진 댘의 얼굴. 보면,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이수가 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너덜너덜해진 털실 뭉치와 겨우 손바닥만 한 형편없는 결과물뿐이다.

**우진 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수**

다시... 풀까요?

동시에 한숨을 푸욱 내쉬는 우진 母와 우진(10).

**우진 母**

그냥 내가 만든 거 사요. 아니 내가 공짜로 줄게.

**이수**

이거 만들어서 어머니 드릴 건데... 어머니가 만든 걸 어떻게 받아요.

CUT TO :

방실방실 밝은 표정의 이수. 그러다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보면, 이수는 아주아주 간단한 걸 하고, 대신 우진 母와 우진(10)이 다 만들고 있다.

아주 작은 걸 하면서도 넘치게 뿌듯해 하는 이수.

(그러나 중간 중간 어지러운지 졸리는지 피곤한 얼굴이기도 하다.)

그런 이수를 보고, 결국엔 웃고 마는 우진(10)과 우진 母.

CUT TO :

결국 쿨쿨- 잠든 이수. 그녀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우진(10)과 못내 걱정스러운 낯빛인 우진 母.

**우진(10)**

걱정 마세요. 이수 이미 알아요. 내가 어떤지...

**우진 母**

그런데... 이런 데서 깊이 잠을 다 자고... 어디 아픈 건 아니니?

**우진(10)**

요즘 잠을 잘 못 잤대요.

우진 母, 어쩐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 **51. 이수 동네 초입 (N)**

가만히 밤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이수**

아, 힘들다.

(우진의 시선에 답하듯)

**이수**

니가 뭘 한 게 있어서... 하는 그런 눈 하지 마.

형편없이 서둘러도 마음만큼은 한 땀 한 땀 장인이었으니까.



미소로 보는 우진(10). 이수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우진(10)**

엄마가 마음에 든대.

늘 짜서 주기만 했지, 당신 위한 건 처음이래. 그래서 고맙대.

이수가 우진(10)의 어깨에 기댄다. 두 사람의 다정한 그림자가 밤거리를 걸어간다.  
그 위로, 둘의 도란도란 대화 소리. '내일 쉬면... 그냥 오늘 우리 집에서...' '이래서 우리 아빠가 아빠  
말곤 다 조심하라는 거지...'

**52. 우진의 작업실 (D)**

작업 테이블에 앉아, 이수와 보낸 일상 기록을 보는 우진(11 / 남 / 30대 중반 / 평범남).

이때, 이수가 나타나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어 보인다. 그녀를 보고 웃는 우진의 얼굴. 평범하다.

CUT TO :

이수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는 우진(11).

**우진(11)**

(음식 삼키더니 반색하는)

진짜~ 맛있다.

**이수**

(분위기 바뀌 장단 맞추듯)

그치? 우리 아빠가 만들어서 그래.

**우진(11)**

그럼 이건 니가 직접...

**이수**

담았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가득~. 맛있지?

이수의 엉뚱한 대답에 킁 웃음이 터지는 우진(11).

이때, 혼자서 외롭게 울리고 있는 우진의 전화기. 발신인은 상백이다.

**53. 상백의 공장 (D)**

상백, 우진에게 전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중이다.

**상백**

(전화기에 대고 뻘- 처리 된 욕 한참 한 후)

니가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알량한 사랑 앞에 우정을 패대기치고 생매장을 시킨다 이거지?

(심호흡...)  
이번 라인 만들다 만 거 알지?  
테이블만 하나 덜렁 새로 던진 후로, 나머지 감감 무소식이잖아.  
샘플 만들어서 준대던 게 벌써 2달 전이야.  
이건 김우진 디자인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남들 다 하는 연애 그만 티내고 이제 일 좀 하자.  
(빠- 빠- 끊어지려고 하자 급 절박하게)  
그리고 나랑도 좀 놀아주고, 친구야.  
너 자꾸 이럼 나 도망간다? 친구야... 나-  
(하는데)

녹음 용량이 초과되어 강제 종료된다.

#### 54. 우진 집 (D)

상백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난감한 얼굴인 우진(11).  
찌렁찌렁한 목소리 덕에 옆에서 다 듣고, 더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수.

**우진(11)**

그 동안 일을 너무 안 하긴 했어...

**이수**

응. 일해, 그럼.  
덕분에 나도 오늘은 좀 쉬지 뭐.  
밀린 빨래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언니랑 운동도 하고...

이수, 주섬주섬 도시락을 챙긴다.

**우진(11)**

(그 모습을 보다가)  
같이 갈래?

**이수**

(반색하며)  
진짜 그래도 돼?

이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진(11).

#### 55. 상백의 공장 (D)

우진(11)과 이수가 공장에 들어선다.  
둘을 쳐다보는 상백.  
우진(11), 아무 표시도 안한다. 킁킁대며 웃는 둘...

상백 '뭐야, 이것들' 하는 표정.

우진(11), 웃으며 자기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상백, 나무 쪼가리를 우진(11) 쪽으로 던진다.

CUT TO :

우진(11), 상백, 침대 도면 들고 얘기중이다.

이수는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상백**

이번엔 바닥에 열시트 깔면 어때? 나이 먹으니까 자꾸 추워 타.

**우진(11)**

그래서 장수돌침대가 있잖아. 옥매트도 있고...

**상백**

왜, 지난 번 내 말대로 한 컨버전스 테이블 좋았잖아.

그 뒤를 잇는 후속작, 또 좋잖아~.

**우진(11)**

(이수에게)

어때?

**이수**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좋아...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해져도 좋을 거 같아요.

표준화 한 사이즈들을 만들어서 기성복처럼 만들면

조금은 친근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를 만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늘 가격이 친절하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우진(11)**

음... 그것도 좋은데?

상백, 도저히 우진이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얼굴이다.

**상백**

너, 누구세요?

**우진(11)**

뭐가?

**상백**

와... 내가 그렇게 가격대 낮추자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거 뭐... 알고 보면, 컨버전스 그것도 내 말 들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우진(11)과 이수, 뭐라 말을 못 하고 괜히 서로 눈빛만 교환한다.

**상백**

(황당해서)

뭐야, 진짜야? 그래??

(체념해 뼈죽이는)

그래 나만 나쁘지... 내가 아주 후져. 내가 취향이 걸레야.

김우진은 우아하시고 백상백은 쓰레기다. 그지?

CUT TO :

시조품으로 나온 침대 목대와 도면을 놓고 이야기 중인 우진(11)과 상백.

고개 끄덕이며 보고 있는 이수.

**상백**

참, 마마스튜디오 창립 기념 파티한다면서요?

초대장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우진(11), 이수를 본다.

**상백**

우린 가기가 좀 그래요.

우리 +가 워낙 신비주의 마케팅이라... 우진이 상황도 그렇고

또 저야 워낙 물 안 좋은 덴 가는 체질이 아니라서...

그니까 서운해 하지 마세요.

**우진(11)**

(이수 보며)

언젠데?

**이수**

맘 쓰지 마. 괜히 말 많은 사람들 틈에서 피곤하지 싶어서 말 안 한 거야.

**우진**

왜? 재밌겠는데...

상백의 똥씹은 표정.

우진(11)의 표정. 그 위로, 쿵쿵- 음악이 울리면....

## 56. 마마스튜디오 (N)

7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다. 각자의 파트너들과 함께 모두가 즐거운 가운데, 오롯이 혼자인 이수.

그녀는 가게 한편에 자리한 우진의 가구에 앉아 맥주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전화기를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참는 이수의 모습.

## 57. 우진 집 (N)

마치 그녀를 보고 있는 듯 축 처진 우진의 뒷모습.  
거울 속에 비친 우진은 할머니다. 깊은 한숨을 쉬는 그.

NA

진짜... 생각하고 자면 꼭 이 모양이라니까...

그리곤 이불을 머리까지 쓰고 잠을 청한다. 그러나 잠시 후, 벌떡 일어나 지랄 발광하는 할머니 우진.  
옆에 있던 테블렛 PC를 보면,  
실장이 실시간으로 블로그에 파티 셀카 사진을 올린 것을 보는데, 이수가 혼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NA

그냥 같까? 이수네 할머니라고 하면 되잖아.

다들 남녀, 남녀 짹짹 즐거운 사진.

NA

꽃미남 아니라도 좋으니까 늙은 못생기든 똥똥하든 남자만 되자! 제발~!!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할머니 우진.  
TV에는 타르코프스키의 <노스텔지어>의 명장면 촛불썬이 나오고 있다.

## 58. 마마스튜디오 (N)

역시 웃지도 울지도 못 하고 있는 이수의 얼굴.  
취한 사람들 뒤통다꺼리하는 중이다. 특히 특이한 디자이너 무리들 틈에서 겨우 빠져 나온다.  
그녀에게 술 한 잔 건네는 실장.

실장

그러게 왜 혼자 왔어.

막내까지도 다 파트너랑 와서 노는데,

짜 없이 혼자 온 건 달랑 너 하나라 애들도 안 드는 수발 혼자서 들어야 하잖아.

이수

알바비 주실거죠?

실장

벌금 안 받는 걸로 통 치자. 근데 니 애인은 진짜 안 온대?

이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는 실장님은요?



**실장**

우리 그이? 일부러 출장 보냈지. 오늘 내 파트너는 술이야.

(하더니)

근데 넌 안돼. 어린 게... 그냥 오늘 새 남자 만들어.

어디 한 번 골라 봐. 내가 연결해줄게?

**이수**

저 애인 있어요..

**실장**

(안 듣고)

애인 있는 애가 이런 날 외롭니? 으휴...

남자의 뒷모습 POV. 그 남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이수에게로 곧장 걸어온다.

놀란 이수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들고 있던 맥주를 시원하게 마신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웃는 남자. 꽃미남 우진(12 / 남 / 20대 중반 / 꽃미남)이다.

놀라는 사람들.

**우진(12)**

달려왔더니 목이 말라서... 많이 안 늦었지?

이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우진(12) 덕분에 그녀는 순식간에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그녀.

**우진(12)**

(예쁘게 꾸민 이수를 사랑스럽게 보며)

오늘 나 뺑 줌 보태서 백 번쯤 자고 일어났어.

우진(12), 숨 막히게 매력적인 미소. 이수, 새삼 발그레 두근두근 달아오른다.

**59. 이태원 클럽 (N)**

우진(12)와 이수,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사랑에 취한 그들.

두 사람이 막 키스하려는데,

**상백**

(불쑥 끼어들며)

중덴다~

상백이 그러거나 말거나 두 사람만의 분위기에 빠진 우진(12)와 이수.

**상백**

(우진 얼굴에 빠져 훑쳐보고 있는 여자에게)

저 놈 잘생겼죠? 근데 저거, 다 소용없어요.  
저 자식 저거, 자고 나면 흘랑 얼굴이 바뀌거든요.  
페이스오프, 막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중국인도 됐다가 똥보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막 변해 막.

**여자**

미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딴어.

**상백**

아 놈... 진짜라니까.  
우진아, 맞지? 이수씨, 이수씨가 말해볼래요?

**이수**

상백씨, 왜 그래요. 얼굴은 멀쩡한데... 설마 취한 거예요?

**상백**

취하라고 마신 거니까, 취했겠지.  
취할 것도 아니면 아깝게 뭐하러 마셔요~.

이수, 걱정스러운 얼굴인데.

**상백**

취한 김에 말하는데... 나 이수씨 진짜 싫어.

이수, 표정 관리 잘 안 된다.

**우진(12)**

취해서 하는 빈말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상백**

아니지. 난 취하면 절대 빈말 안 해.  
이수씨 이 자식 비밀 말해줄까요?

**우진(12)**

상백아 취했다. 그만해.

**상백**

(우진보고)

무섭지? ㅋㅋ. 이수씨, 이 자식 진짜 잘 우는 거 알아요?

우진(12), 상백 말리려는데 이수가 저지한다.

**이수**

잘 울어요?

**상백**

(끄덕)

아니... 킹콩이 슬퍼? 이수씨 킹콩보고 물어봤어?

애는 운대니까. 아주 대성통곡을...

거기 뭐야 엠파이어 거기 킹콩 매달릴 때... 킹콩 불쌍하다고 아휴 진짜...

**우진(12)**

(어금니 꼭 깨물고)

상백아~ 취했다고 그렇게 말 만들면 어떡해...

**상백**

(씨익)

맞다, 야 너 러브 체어 주문했더라?

가명에 해외 사이트로 주문하면 뭐 하나?

주소는 결국 니네 집인데.

(우진의 귀에 대고)

어떻게 이수씨랑 응 응?

이수가 우진을 보면, 우진(12) 어색하게 시선을 돌린다.

우진(12), 상백의 전화를 빼내 여자 친구한테 전화 한다. 그 사이, 상백이 나지막이 이수에게 말한다.

**상백**

이수씨 내가 내 비밀도 하나 말해줄까요?

(이수 보며)

나 이수씨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근데 그래서 걱정돼.

나쁜 눈이면 나쁜 눈한테 당했다 그러고 말면 되는데...

이수씨처럼 좋은 여자한테 상처 받고 나면, 그거 다 우진이 저 자식, 지 탓 할까 봐...

눈물 많은 저 자식, 지 혼자 울까 봐... 그래서 나 이수씨가 싫어...

이수, 상백의 진심이 이해가 되는 듯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우진(12), 이수를 본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보는 둘...

**상백**

얼씨구~ 좋댄다.

(마려운 표정으로 부르르 떨더니)

아씨... 왜 벌써 신호가 오냐...

휘청휘청 화장실로 가는 상백.

**우진(12)**

나가자. 저 녀석 또 방해하러 오기 전에.

**이수**  
그래도 돼?

**우진(12)**  
괜찮아. 저 자식 여자 친구 불러놔어. 곧 올 거야.

**이수**  
그럼 둘이 만나는 거 보고 나서...  
(하는데)

어느 새 득달같이 달려온 상백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상백을 보고 난리치는데,  
상백, 그녀에게 매달려 보고 싶었다며 좋아한다. 그녀, 화를 내려다 받아준다.  
두 사람을 모르는 척, 지나는 우진(12)와 이수.  
상백 여친, 본능적으로 꽃미남 우진(12)를 향해 돌아가는 시선. 상백이 그녀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다.

## 60. 우진 침실 (N)

드디어 단 둘이 된 우진(12)와 이수가 키스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우진(12)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열어간다.  
달콤하게 흥분된 숨결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수의 가슴. 가늘고 매끈한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자,  
우진(12)가 그 어깨에 다정한 입맞춤을 한다. 이수가 작은 탄성을 뿜는다.  
이수, 앞서 우진과 함께 쇼핑했던 속옷을 입고 있다. 이를 보고 좋아하는 우진(12).  
우진(12)의 손길과 입맞춤에 점점 더 깊은 사랑이 담긴다.  
그런 우진 사랑에 이수 역시 진한 진심으로 화답한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침내 하나가 된다.  
침대 위 열은 조명 아래,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사랑스러운 밤이 완성된다.

## 61. 도심 전경 (D)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들.

## 62. 우진 집 (D)

잠든 이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진(12)의 시선.  
이수가 가만히 눈을 뜬다.

**우진(12)**  
좋은 아침.

**이수**  
(얼굴 보며)  
안 잤어?

**우진(12)**

어떻게 이런 나를 옆에 두고... 잠이 왔지?

**이수**

(진심 정색하듯)

그렇게나 그러고 어떻게 안 자...

**우진(12)**

(씨익-)

내가 그렇게나 그랬어?

이수, 부끄러운 듯 이불 안으로 숨어든다. 우진(12), 따라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 이불 속에서 장난치다 다시금 달콤한 모닝 키스를 나눈다.  
우진(12)의 달콤한 키스에 긴장한 듯 파르르 떨리는 이수의 속눈썹.  
뭔가 편치 않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도 한다.  
살며시 눈을 떠, 그대로인 우진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안도한 듯 다시 눈을 감는다.  
다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시간.  
컷컷으로 우진의 모습이 변하는 가운데, 이수는 그대로다.  
우진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긴장하는 이수의 모습. 그때마다, 우진의 손을 잡고 익숙한 체취를 찾으려 애쓰는 듯 이수. 우진, 긴장된 그녀를 달콤하게 풀어준다.

그 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함께 표현된다.

### 63. 우진 주방 (D)

열린 냉장고 문에 가려 다리만 보이는 누군가. 보면, 우진의 티셔츠만 입은 이수다.  
이수의 표정. 냉장고 내부는 깔끔하지만, 음식은 하나도 없이 물과 맥주 등 뿐이다.  
그녀 뒤로, 레토르트 식품을 데우며 싱글벙글인 우진. 그 역시 티셔츠와 속옷 바람으로 얼굴이 바뀌어 있다. 댄디한 외모의 우진(13 / 남 / 30대 초반 / 댄디남).  
우진(13)이 이수를 뒤에서 백허그 하는데, 이수가 미세하지만 긴장하는 게 보인다.  
이수가 우진의 팔 높이를 살짝 옮겨주면, 우진(13)이 왜? 하는 눈빛으로 본다.

**이수**

(씩 웃으며)

어제처럼 이쯤이 좋아... 그 아랜 살피서 밉거든.

(하고는)

살며시 눈을 감은 이수, 자신의 허리를 감싼 우진(13)의 손을 잡고 가만히 호흡한다.

**이수**

이 향... 언제 말아도 참 좋아.

(눈을 뜨고 뒤돌아 우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근데 맨날 똑같은 내 얼굴, 지겨워지면 어떡해?

**우진(13)**

(말도 안 된다는 듯)

너 몰랐어? 너 맨날 딴 얼굴이야.

어젠 다크 서클이 눈 바로 밑까지만 있었는데, 오늘은 턱 끝까지 내려왔지.  
거기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얼굴은 통통 붓고... 어, 여기 뽀루지도 생겼다.

**이수**

(창피한 듯)

뭐야, 그만 봐. 그러다 땀구멍까지 썰려구.

**우진(13)**

(이미 썬 거 어떻게 알았냐는 듯)

몇 갠지 궁금하면 말해주고.

이수가 토라진 듯 우진(13)의 품에서 벗어나려는데,  
우진(13)이 다시 한 번 이수를 백허그 하며 이수의 손을 꼭 잡는다.  
이수, 둘의 맞잡은 손을 보다가 미소 지으며 우진(13)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CUT TO :

이수의 표정.

보면, 이수의 턱 아래 보글보글한 파마머리가 보인다. 푸근한 인상을 한 아주머니 모습의 우진이다.

**이수**

닭았어...

**우진(아줌마)**

?

보면, 이수의 다이어리에 있는 가족사진. 이를 보는 우진(아줌마)의 시선.

**우진(아줌마)**

언니랑 지금 내 얼굴 닭았어?

**이수**

아니. 우리 엄마. 엄마 요리할 때 안아 보면, 딱 지금 이 만큼 그랬거든.  
그리고 눈썹 문신도 딱 그렇게 생겼었어.

우진, 웬지 짝한 이수.

**우진(아줌마)**

우리 이수, 엄마랑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

이수의 시선.

**우진(아줌마)**

엄마랑 목욕탕 갈까?

엄마랑 해보고 싶은 거 하면, 딱 목욕탕 맞지?

**이수**

김우진씨가 여친이랑 해보고 싶은 게 딱 목욕탕이겠지.

**우진(아줌마)**

건 오해야~.

**이수**

(장난스레 눈 흘기다 특)

엄마랑 해보고 싶은 거라면 따로 있는데...

#### **64. 마트 (D)**

카트 가득 엄청난 양의 장을 보는 이수과 우진(아줌마). 다정한 모녀처럼 보인다.

#### **65. 우진 집 주방 (D)**

영망으로 어질러진 부엌.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반찬들.

땀을 닦는 우진(아줌마), 긴장된 표정이다. 보면, 우진이 만든 음식을 맛보는 이수.

**이수**

맛있어. 근데... 엄마 맛이 아니야...

**우진(아줌마)**

또?

**이수**

내가 우리 엄마표 집 밥 진짜 비밀 알려줄까?

(우진(아줌마)가 보면, 이수 조미료를 솔솔 넣으며)

바로 이거야.

이수가 우진(아줌마)에게 맛을 보여주고, 서로 웃는다.

CUT TO :

우진의 냉장고 안. 각종 반찬들이 담긴 락앤락들이 차곡차곡 가득하다.

이를 보는 뿌듯한 얼굴의 이수. 그리고 우진(아줌마).

**이수**

고마워, 엄마... 남친이랑 맛있게 잘 나눠 먹을게.

(미소)

우진(아줌마)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준다.

**이수**

진짜 우리 엄마 같-

(하다가)

을 리가 없지.

보면, 어느새 음흉하게 이수 허리와 엉덩이에 가 있는 우진의 손.

**이수**

(웃으며)

제발 참아 줘. 이상하잖아. 그런 얼굴로 그러면...

**우진(아줌마)**

그럼 난 얼른 자야겠다.

이수, 우진이 못 보는 사이 어쩔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우진(아줌마)**

(이수 보며)

어떤 얼굴이 좋아?

**이수**

(미소로)

그냥 딱 김우진 같은 남자.

그 위로, 즐거운 비명소리들이 이어지면.

## **66. 놀이공원 (D)**

긴장된 얼굴의 이수, 이내 실망한 낮빛이 된다.

보면, 롤러코스터 앞 어린이 신장 제한에 걸린 어린 소년 모습의 우진(꼬마)가 있다.

**우진(꼬마)**

난 괜찮으니까... 혼자 타. 1시간이나 기다린 거잖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미 롤러코스터에 앉아 있는 이수.

똥한 표정이었던 우진(꼬마)의 얼굴이 장난 어린 표정으로 바뀐다.

CUT TO :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이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보는데 우진(꼬마)가 안 보인다.

이수,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만, 우진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다시 주변을 돌아보며, 어쩐지 넘치게 불안한 듯 보이는 이수. 중간 중간 이수 현기증과 두통이 이는 듯 힘들어 보인다. 문득문득 그녀는 시야가 흐려지기도 한다.

애써 정신을 차리며, 이리저리 우진(꼬마)를 찾으며 계속 전화를 걸어보는데, 이때 들리는 소리.

**방송**

(V.O.)

서울 노원구에서 온 홍이수 어린이는 지금 방송실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김우진씨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혈레벌떡 뛰어가는 이수. 도중에 두통으로 시야가 흐려지며 넘어질 뻔 한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가 스친다.

## 67. 놀이 공원 내 방송실 (D)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는 이수. 두리번거리며 우진(꼬마)를 찾는다. 서너 명의 꼬마들이 제 엄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에 우진(꼬마)는 보이지 않는다.

**이수**

어딴데요, 우리 오빠- 아니 우진이...

(우진의 아까 모습을 묘사하며)

어딴데요? 방송에서 여기 있다고 했는데...

**놀이공원 직원**

누구요?

**이수**

김우진 어린이요.

**놀이공원 직원**

(누구? 하다가 이름 기억하곤 별 미친...)

어린이는 무슨. 저기 있잖아요.

이수가 보면...

낯선 얼굴의 한 남자 어른이 있다. 우진(14 / 남 / 나이설정X / 청혼남)이다. 이수, 굳은 얼굴로 생경한 그를 보며 긴가민가 한다.

**우진(14)**

(씨익 웃으며 이수의 손을 잡으며)

이수야... 나야.

이수, 그 말에도 잠시 그를 본다.

**놀이공원 직원**

(혼잣말이지만 들으라는 듯)

남들 다 하는 연애 거 참 별나게들 하네. 서로 어린이래...  
애기야도 아니고 아으... 진짜...

**이수**

(화난)

어디 납치라도 당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진(14)**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그럴 리가 없잖아... 난 어른인데. 그냥 장난 친 거야...

**이수**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우진(14)**

미안해... 난 그냥... 너 재미있게 해주려-  
(하는데)

이수, 우진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울리며 시야가 흐려지는 걸 느끼며 현기증으로 힘들어 한다.  
놀란 우진(14)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한다.

**68. 우진 집 (N)**

우진의 침대에서 잠이 든 이수. 악몽이라도 꿈 듯 놀라서 잠을 깬다.

**우진(14)**

미안해... 그런 장난은 치는 게 아닌데...

**이수**

응... 다신 그러지 마.

**우진(14)**

몸은 좀 어때?  
진짜 병원 안 가도 되겠어?

**이수**

병원은...

요즘 가게 일도 바쁘고, 연애도 바쁘고... 둘 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우진(14), 그런 이수가 안스럽다.

CUT TO :

잠에 빠진 이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우진(14).

또 다시 악몽을 꾸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데, 우진(14)가 이수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그러자 살며시 편안해지는 이수의 얼굴. 그녀, 우진(14)의 향을 더듬듯 그의 품에 안겨온다.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는 우진(14).

## 69. 우진 집 주방 (D)

양손 무겁게 들고서 투덜거리고 있는 상백.

**상백**

난 그렇다치고, 엄마한테 어쩔 그러냐?

우진(14), 상백 눈치를 본다.

**우진(14)**

전화하지...

**상백**

내가 안 했겠냐, 니가 안 받았겠냐?

**우진(14)**

미안 ...

상백, 그 사이 냉장고를 열고 챙겨 온 것들 넣으려는데, 딱 찬 냉장고 안이 눈에 들어온다.

**상백**

이거 다...

**우진(14)**

(씩-)

이수랑 내가 했어.

**상백**

(반찬 꺼내 집어 먹어 보며)

아... 놔... 진짜... 이러다 너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면 쪽팔려서 내 얼굴 어떻게 볼라고.  
설마... 뭐 결혼 이판 것도 한다는 거 아니지?

**우진(14)**

진짜 그럴까?

**상백**

점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너 이거 진짜 중증이야.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면... 그땐 진짜 죽고 싶을 거라고.

(흥분해서 점점 목소리 높아지는)

막 미치게 잘 생겼어, 근데도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앞으로 평생 딸랑 이수씨 하나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비극인지, 내가 꼭 이렇게 말로 읊어야 되겠냐고...

**우진**

(위층 눈치 보며)

안 가냐? 볼 일 봤음, 가라 쯤.

**상백**

(눈치 채고)

아주 살림을 차리셨어.

(하더니, 이수의 속옷으로 추정되는 속옷 보며)

이건 뭐... 집 꼴도 딱 신혼 부부 집이네.

**우진**

내 거거든!

(하며 상백을 몰아내는)

CUT TO :

우진의 시선에 들어오는, 집안 곳곳. 이수의 소지품, 이수과 함께하는 소품 등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간에 녹아들어 있는 걸 본다.

CUT TO :

옥상. 나란히 서서 동네 전경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시는 우진(14)과 이수. 그 일상이 너무나 평화롭다.  
그리고 골목 어귀 편의점 주인인 노부부가 강아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게 보인다.

**이수**

저렇게 오래... 저렇게 늘 사이좋다는 게 믿어져?

**우진(14)**

너 모르는구나? 저분들 저 연세에도 매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우는데.

**이수**

거짓말. 저렇게 다정하신데?

**우진(14)**

그러니까. 매일 열정적으로 싸우고 더 열정적으로 화해하고... 그게 비결이라니까.

이수, 장난으로 눈을 흘긴다.

우진(14), 이수를 뒤에서 가만히 안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수, 그런 우진(14)의 손을 꼭 잡는다.

**우진(14)**

(이수의 정수리에 턱을 기대고)

부럽지?

**이수**

응...

우진(14)의 시선과 표정.

## 70. 뜨개질 가게 (D)

상기된 얼굴의 우진(14)와 짐짓 밝은 미소를 띤 우진 母.

**우진 母**

그 아가씨는-

(하는데)

**우진(14)**

이수야, 흥이수.

**우진 母**

그래... 잘 지내니? 그때 보니까 좀 아파 보이던데, 다른 말 안 해?

**우진(14)**

그냥... 요즘 무리를 했나봐. 엄마도 이수 맘에 들지?

어두워지는 우진 母.

**우진(14)**

엄마

**우진 母**

(보면)

**우진(14)**

나... 이수랑 결혼할까?

**우진 母**

(속으로 애써 감춘 아픔으로)

그, 그래? 그래 이수는 뭐라니...

**우진(14)**

아직 이수한테 말 안 했어.

**우진** 母

그래도 우진아... 혹시... 근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 애가... 아니 이수가 싫다고 해도...

**우진(14)**

걱정 마. 이수가 나 이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진** 母

그러니까... 혹시 애기자...

**우진(14)**

걱정 마요... 우리 편찮을 거야.

웃는 우진(14).

그런 우진(14)에게 미소를 지어주지만, 우진(14) 몰래 얼굴 위로 걱정을 떠올리는 우진 母.

## **71. 상백 공장 (D)**

툭툭거리는 상백에게 특별한 목재를 전해 받는 우진(14).

CUT TO :

우진 집.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우진(14). 그 옆으로 디자인하다 구겨서 버린 종이들이 수북하다.  
고민을 하다가도 싱글벙글 행복한 우진(14)의 얼굴. 나무를 깎고, 원형으로 굴리는 유난히 세심한  
손길이다.

## **72. 마마스튜디오 (D)**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하고 있는 이수. 그녀 앞에는 황당해 하는 얼굴의 손님이 있다.

**이수**

죄송해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손님**

아니 보니까 아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던데... 놀리는 거예요, 아님 작업이에요?

**이수**

죄송합니다...

CUT TO :

약을 삼키는 이수. 그때, 가게로 들어서는 누군가를 보며.

**이수**  
... 우진씨?

**우진(14)**  
(환하게 미소로)  
며칠 잠 안 자고 버틴 보람이 있네. 한 번에 다 알아보고.

이수, 희미하게 웃는다.

### 73. 우진 집 옥상 (N)

돌 만의 야외극장처럼 꾸며진 공간.  
스크린 위에 처음에는 혼자이던 우진이 이수를 만난 이후에 행복한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 흐르고 있다.  
이를 보며 생각 많은 얼굴의 이수. 우진(14)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수**  
참 행복해 보여...

**우진(14)**  
누구, 나?

**이수**  
아니... 나.  
오빠도 저때 행복했어?

**우진(14)**  
이수야... 우리 결혼할까?

찰나지만 문득 경직되는 이수.  
이를 고스란히 느낀 우진(14).

**이수**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오빠...

**우진(14)**  
아... 배고프니까 헛소리가 막 나오네... 밥부터 먹자.  
(하며 내려가며)  
여기 있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런 우진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말을 걸지 못하는 이수.



CUT TO :

주방.

음식을 챙기다가 멍해지는 우진(14).

**NA**

어떻게 이수가...

(하다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나 같은 사람이란 결혼까지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이해해...

CUT TO :

얇은 나무로 만든 팝업 북. 펼쳐지면, 그 안에 이수에게 줄 물푸레나무 반지가 있다.

이를 보는 이수의 복잡한 눈동자. 이때, 우진(14)가 음식을 가지고 올라온다.

이수, 보고 있던 걸 못 본 척 덮어버린다.

우진(14)는 이미 그 상황을 다 봐버렸지만, 모른 척 한다.

**우진(14)**

테이블 정리했구나. 잘했네.

**이수**

...

우진(14),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이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

CUT TO :

그대로 남겨진 음식.

더 어색해진 우진(14)와 이수. 서로 눈이 마주치자...

**우진(14)**

집에 갈까?

(이수 대답도 하기 전에)

가자...

**이수**

...

두 사람, 서먹하게 일어선다.

## 74. 차 안 (N)

두 사람 아무 말이 없다.

그들 위로 무심히 스쳐가는 도심 밤거리 불빛들...

이수,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우진을 쳐다보지만, 앞만 보고 있는 우진(14)의 옆모습.

## 75. 이수네 집 앞 (N)

평소와 달리 서먹한 거리가 느껴지는 둘의 발걸음.

**이수**

오빠... 화났어...?

**우진(14)**

...아니. 왜?

**이수**

... 아깐 내가... 놀라서...

**우진(14)**

...

**이수**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진(14)**

농담이라니까...

**이수**

...화났구나.

**우진(14)**

아니.

두 사람 사이를 채우는 불편한 침묵.

**이수**

오빠 근데... 결혼하려면 생각해야할 게 한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 다 생각은 해 봤어...?

**우진(14)**

... 내가 계획도 없이 그런 얘길 꺼냈을 리가 없잖아.

**이수**

결혼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생각도 해야 되고...

**우진(14)**

뵈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수 너희 아버님이니까... 설득할 자신 있었어.  
물론 처음엔 싫다하실 수도,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니까... 너랑 나니까...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

**이수**

오빠...

**우진(14)**

결혼식 계획도 벌써 다 세워놔어.  
잠 안 자고 3박 4일 정도는 어찌 버틸 수 있으니까...  
하루는 결혼식 올리고 다음 날 구청 가서 혼인신고도 하고 필요하면 그 전에 인사도 다니고...  
얼굴이 변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다 할 수 있도록 계획도 다 했다고.  
물론 이런 나라서, 신혼여행을 남들처럼 해외로 가게 해줄 순 없지만,  
그 대신 니가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했었다고.  
(하다가)  
그래 나만 생각한 거지만...

**이수**

그렇게까지 고민해줘서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시력도 재고, 발치수도 재고 하지?

**우진(14)**

무슨 얘기야?

**이수**

오빠가 낯선 자기 얼굴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그래.  
오빠가 아무리 낯선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엔 결국 오빠 한 사람 뿐이라는 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

**우진(14)**

(이수 말 막으며)  
그래서 그게...

**이수**

나 오빠 정말 많이 좋아해. 근데... 그래서 더 고민이 돼...  
오빠도 나도 상처 받지 않고 이대로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뭘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노력으로 가능하긴 한지...

**우진(14)**

... 노력이라... 그렇게 힘들어?

**이수**

오빠, 가족끼리도 잘 지내려면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결혼도 그런 가족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우진(14)**

우린 그냥 연애만 하자고 그랬어야 했나 보네...

**이수**

왜 그렇게 말해...  
그냥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돼?  
오빠가 말했다고 바로 알았어! 할 순 없는 거잖아.

**우진(14)**

그래... 나 같은 놈이랑 결혼... 어려운 문제지. 이해해.

**이수**

오빠...!

**우진(14)**

괜한 부담 줘서 미안하다.  
그냥 잊어버려. 진짜 농담이었으니까.

**이수**

오빠 너, 정말...!!  
내 맘 그런 거 아니라고, 고맙고 미안한데 시간만 좀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우진(14)**

알았으니까, 그만 들어가.

**이수**

오빠.

**우진(14)**

피곤하다. 나 먼저 갈까?

이수, 우진(14)를 한참 노려본다.

우진(14)도 이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본다. 잠시 후, 허탈한 표정 짓더니 돌아서려는 우진(14).

이수, 우진(14)의 팔 탁- 잡고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현기증이 나는지 머리를 잡는다.

우진(14) 이수를 보면... 쓰러지고 마는 이수.

**우진(14)**

이수야. 이수야.

이수를 엮고 뛰는 우진(14).

## 76. 병원 응급실 (D)

잠에 빠진 듯 의식이 없는 이수의 얼굴. 그녀를 바라보는 우진(14)의 표정. 그 위로,

**의사**

신체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진(14)**

그런데 왜 이런 겁니까?

**의사**

글쎄요... 검사 결과 이상은 없으니까, 곧 깨어날 겁니다.

**우진(14)**

안 깨어나면요?

**의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봅시다.

(하며 차트 보다가)

그런데 이 환자 요 근래 신경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네요...

깨어나면, 그쪽 과랑 재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놀란 얼굴의 우진(14).

INSERT :

하늘의 색이 바뀌고, 시계바늘이 돌면서 시간 경과가 된다.

잠시 후, 그의 정수리를 매만지는 손길. 이수다.

**우진(14)**

(얼른 보며)

정신이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덴 없고?

**이수**

응... 그런데 오빠 아까...

**우진(14)**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시간 늦었다. 얼른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이수, 미소 지으면서도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이다.



## 77. 우진 집 (N → D)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우진. 무언가를 생각한다.

엄마가 이수 건강을 걱정하던 말, 그리고 마치 그녀가 청혼을 거절할 거라는 걸 알기라도 한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수심에 잠긴 우진.

알람이 한참동안 울린다.  
우진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CUT TO :

화장실 거울을 보는 우진. 젊은 여자로 변해 있는 우진(15 / 여 / 20대 중반 / 젊은 여자).

## 78. 뜨개질 가게 (N)

방울소리.  
엄마가 입구를 보면, 우진(15)가 물끄러미 보고 있다.

**우진(15)**

엄마...

우진 母, 우진(15)를 본다.

## 79. 뜨개질 가게 (D)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 우진(15).

**우진 母**

무슨 일 있니?

**우진(15)**

엄마...

**우진 母**

(심상치 않은 아들의 목소리에 보면)

**우진(15)**

그때 이수 안 아프냐고... 그거 왜 물어 봤어?

**우진 母**

...

**우진**

이수가 쓰러졌어...

우진 母, 뜨개질 하던 손길을 멈추고 얇은 한숨을 쉬더니 멍하니 허공을 본다.

**우진(15)**

근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대...

**우진 母**

(한숨을 쉬고)

술 한 잔 할까?

담담하게 가게를 정리하는 우진 母의 손길.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 80. 포장마차 (N)

함께 술을 마시는 우진 母와 우진(15).

**우진 母**

그 아인 괜찮을 거다.

**우진(15)**

(보면)

**우진 母**

너희 둘이 헤어지면...

그럼 괜찮아질 거야.

**우진(15)**

무슨 소리야, 그게...

우진 母, 한참을 말없이 술만 마신다.

**우진 母**

(술 한 잔 마시고)

니 아빠랑 있었을 때,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떠났던 거야... 아니 떠났을 거야.

엄마를 보는 우진(15).

## 81. 포장마차 앞 (N)

계산을 하고 있는 우진 母. 우진(15),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몸을 못 가누고 있다.

CUT TO :

거리. 우진 댄, 술에 곤죽이 된 우진(15)를 어찌지 못해 찔찔매고 있다. 그때,

**남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삼십대 후반의 남자. 우진(15)와 비슷한 또래다. 남자가 우진(15)를 업는다.

**우진 댄**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남자, 우진(15)를 업고 걸어간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선 우진 댄.

## 82. 택시 안 (N)

남자가 우진(15)가 편히 자도록 몸을 기대준다.

차창으로 어지러운 도시 불빛들이 스쳐간다.

## 83. 우진 집 (N)

카메라는 침대를 바라보고 트랙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우진 댄 우진(15)를 부축해서 프레임인 침대에 얹드려 누인다. 옷을 입은 그대로다.

그리고 잠시 서서 우진(15)를 바라보다 식탁 쪽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는다. 이때 카메라는 어둑한 방, 침대 쪽을 바라보며 계속 트랙 이동한다. 컷트 없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알람이 울리고 우진(16 / 남 / 30대 중반 / 감성적 외모의 남자)가 같은 옷을 입고 천천히 일어난다.

인기척을 느끼는 우진(16). 놀라긴 했지만. 뭔가 느낌을 받는다.

**우진 댄**

일어났구나.

**우진(16)**

...

**우진 댄**

속은 어때...? 뭐, 물 좀 마실래?

(하다가)

하긴 숙취가 없지, 너도...

**우진(16)**

(숨을 길게 내쉰다)

엄마가 짠 스웨터를 입고 있는 우진 댄를 보는 우진의 시선.

우진 父

엄마가 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든…?

우진(16)

...

우진 父

넋이 나갔네. 이 녀석 이거...

우진(16)

제가 가장 못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입에서 절대 안 나오는 말.

우진 父

...

우진 父, 차마 우진을 바라보지 못한다.

우진(16)

아버지, 아빠.

전 이 말을 못해요... 왜?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질 않아.

나도 분명히 아빠가 있을 텐데, 아버지가 있을 거였는데...!

우진 父

(아련하다)

우진(16)

왜 떠났어요, 왜 버리고 사라져서 지금은 또 왜.

우진 父

그런 적 없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는 아픈 침묵.

우진(16)

(마른 침을 삼키며)

대체... 어떻게...된 거예요...?

낡은 노트 하나를 건네는 우진 父. 우진 母의 일기장이다.

우진 父

그냥 니 엄마랑 내 얘기를 해주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말야.

#### 84. 엄마 아빠의 사연 몽타주

- 여러 모습을 한 자신의 사진첩을 보여주는 우진父. 놀란 얼굴로 보다가 딸꼭질을 하는 우진母. 우진父, 얼른 달려가 물을 가져와 우진母에게 정성스럽게 먹여준다.

우진 父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해요.  
남자로, 여자로, 할머니로, 아이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순영씨,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순영씨 평생 지켜줄게요...

키스를 나누는 우진母와 우진父.

- 우진과 이수가 그랬던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우진父와 스킨십을 나누는 우진母의 모습. 이수처럼 낯선 모습들의 그에게 익숙해지기 위해 자기만의 노력을 기울인다.

우진 父

(V.O)

전혀 몰랐다. 난 그저 니 엄마가 마냥 좋았거든.  
하지만 니 엄마는 그렇지 않은 애였던 게지... 계속 애쓰고 있는 거였어...  
그거 참. 나를 만난 게... 니 엄마에겐 천벌 같은 거 였드라. 몰랐어, 난.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 우진父. 어린 우진과 엄마의 일상모습을 가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슬프게 웃는다. 돌아선다.

#### 85. 우진 집 (N)

깊은 아픔에 잠긴 우진과 우진父.

우진 父

나만 빠지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하고 엄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미안하다...

우진(16)

...

우진 父

너, 지금 좋아하는 그 아이 말이야.

우진(16)

그만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진 父  
좋은 아이 같더라.

우진 父  
...  
(자리에서 일어선다, 옷을 챙기고 나가려고 한다.)

우진(16)  
엄마한테 들르세요.  
기다리시잖아요, 맨날.  
그 스웨터 입으셨으니 금방 알아보시겠네...  
(아련한)

두사람. 투샷 전신.

우진 父  
(문득)  
그래도 난 후회 안 한다...  
나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면서 괴로워하던 니 엄만데... 이젠 괜찮으니 얼마나 다행이나.

우진의 시선...  
탁자 위에 올려진 우진 母의 일기장 C.U.

## 86. 신경정신과 진료실 / 우진 母 사연 (D)

그리고 이수 의 정신과 상담 내용과 우진 母의 사연이 병치 된다.

- 신경정신과 진료실.

의사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죠?

이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일기를 쓰고 있는 젊은 우진 母.

우진 母  
(V.O)  
거짓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증상이 시작된 건, 그와 처음, 아니 두 번째 잠자리를 하던 날 부터예요.  
매번 낯선 남자 품에 안기는 게 꼭... 바람피우는 것만 같고...  
그래서 자꾸 몇 번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확인을 하게 되고...

- 신경 정신과 진료실.

**이수**

늘 그렇게 그 사람이 낯설고, 그래서 내가 늘 긴장하고 있다는 걸,  
겁내고 낯설어 하는 걸 들킬까 봐... 두려워요.

**의사**

연애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네요. 그래서 연애를 정신병이라고도 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 최근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나요?  
회사에 문제가 있대든지... 싸웠대든지...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대든지...

**이수**

(고개를 가만히 젖는)

INSERT :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있는 이수.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다. 안도하는 이수.

-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임신테스트기, 임신했다는 표시로 변하며,  
임신이 됐다는 표시의 테스트기를 보고 있는 젊은 우진 뱃.

**우진 뱃**

(V.O)

아이가 생긴 후로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뭔가 안정이 되는 것도 같았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 신열을 앓으며, 헛소리 하는 우진 뱃.  
우진 뱃,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우진 뱃의 고통스러운 잠꼬대.

**우진 뱃**

여보... 나 정말 너무 무서워요...  
당신 얼굴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우리 아이도 그러면 어찌죠...?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 받는 우진 뱃의 표정.

- 신경 정신과 진료실.

**의사**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진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어요.

**이수**

... 사실 가장 힘든 건...

- 함께 잠든 신생아 우진과 할아버지 우진 父. 이들을 보는 우진 母의 시선.

**우진 母**

(V.O)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당신이랑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당신이 겁나고, 전부 자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몸까지 아픈 것만 같고...  
이렇게 점점 내가 미쳐만 갈까 봐 모든 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 신경 정신과 진료실.

**이수**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거기에 익숙해지려다 보면, 어느 새 헤어질 때가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이지...  
(먹먹한)

**의사**

헤어지고 싶은 건가요...?

**이수**

(생각해보다 고개 저으며 미소로,)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신경이 좀 예민해진 거 뿐인데... 그쵸?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선생님?

**의사**

뭔가 착각하시는군요.

마음의 멍이 낫지 않고 계속 깊어지면 결국엔 신체적으로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 길거리에서 쓰러진 우진 母. 피를 흘리고 있다. 옆에서 아이가 뺨뺨 울고 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또 다른 모습을 한 우진 父.  
우진 母의 가족들이 몰려오고, 낯선 얼굴의 우진 父는 뒤로 물러난다.

- 신경 정신과 진료실.

**의사**

원인이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해야 나올 수 있어요.

**이수**

대체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데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 부모님과 함께 아이와 편안한 얼굴로 있는 우진(16)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우진(16)의 모습. 등에는 한가득 짐이 지어져 있다.

### 87. 우진 집 (D→ N)

절망감이 깊이 배인 우진(16)의 얼굴.  
그 앞에 놓여있는 우진(16)의 일기장.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로 해가 넘어가 저녁으로 바뀐다.

NA

내가 바란 건 사과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는데...

### 88. 몽타주 (D→ N)

- 아침. 알람소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우진(16). 또다시 반복되는 아침의 일상. 이 화면 위로...

이수

(F, 밝은 목소리)

오빠 아직도 화났어? 남자가 뭐 그러냐? 연락도 안 받고...

시간경과 :

이수

(F, 여전히 밝은 목소리)

오빠 우리 회사 파티 한데 올 수 있지? 저번처럼은 아니더라도... 응?  
화가 안 풀린거야? 전화 줘.

시간경과 :

이수

(F, 어두운 톤의 목소리)

나 아파... 몸이 안 좋아. 연락해...

- 병원에서 나오는 이수.  
그녀 뒤를 따라 걷고 있는 그림자. 우진(16)이다.

- 길을 걷다 멈춰서서 눈을 감는 이수.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 우진(16). 이수 눈을 뜨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 서로 동시에 전화를 거는 이수(16)와 우진(16). 각각 캐치콜이 잡힌다. 이수, 망설임 없이 전화를 하려던 걸 멈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진(16). 자신도 이수에게 전화를 걸던 걸 그만 둔다.

- 버스 안. 멀어지는 이수네 동네를 보는 우진(16).

## 89. 우진 집 (N)

커다란 TV 화면 가득 돌아가는 사진들. 이수과 함께한 행복한 일상의 사진들이다.

NA

매일 다른 모습으로 이수를 만나는 것도 좋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이 행복해보일수록 우진(16)의 얼굴에 아픔이 떠오른다.

NA

이수는 한 번도 그런 나를 뭐라 하지 않았고...

상백의 공장에서 즐거운 우진과 이수.

NA

평생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마마스튜디오. 멍하니 앉아 있는 이수.

NA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

화면이 양분되어 혼자였을 때 우진 사진과 이수과 둘일 때의 사진이 나란히 있다.

NA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도 한다.

우진(16), 천정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아픔으로 텅 빈 듯 공허한 그의 눈동자.  
F.O.

## 90. 우진 작업실 (시간 경과)

알람소리.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은 우진(17 / 남 / 40대 후반 / 선 굵은 외모의 남자).  
벽면에 걸린 그의 세계지도. 그 아래, 밤이 깊도록 가구를 만드는 우진(17).

## 91. 마마스튜디오 앞 (N)

퇴근하는 이수. 그녀 옆으로 가만히 다가서는 우진(17). 이수가 말갈게 보면,

우진(17)

이수야, 나야...



이수,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미소 짓는다.

**이수**

(미안해하며)

전화 하고 오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우진(17)**

오늘 꼭 줄게 있어.

이수, '오늘'이라는 말에 문득 멈춰 섰다가 다시 돌아서서 걷는다.

우진(17) 역시 말없이 그녀 뒤를 조용히 따른다.

**이수**

(돌아서서)

왜 꼭 오늘이야?

**우진(17)**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수, 슬며시 웃는다.

이수가 앞서 걷는데,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우진(17)의 눈길. 매순간 매초가 안타까운 눈길이다.

## 92. 우진 작업실 (N)

그녀의 눈앞에 완성된 샘플 가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번개 맞은 장미목 의자다.

앉아 보면, 딱 이수과 우진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로 완벽하다.

이수, 어느 새 마음이 풀린 듯 하다.

**우진(17)**

마음에 들어?

**이수**

(끄덕이며)

엄청. 근데... 딱 하나 아쉬워.

우진(17)이 보면.

이수, 생채기투성인 우진(17)의 손을 본다.

CUT TO :

우진(17)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수**

맨날 바뀌니까... 맨날 일해도 굳은살이 생길 틈이 없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매번 아프지?

**우진(17)**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지는데 뭐.

이수가 가만히 우진(17)에게 기댄다. 두 사람, 우진이 만든 의자에 함께 앉아 있다.

이수, 안락하게 우진(17)의 품에 안겨 그에게 키스 하려는데 우진(17)은 그런 그녀를 어렵게 거절한다.

**우진(17)**

(짐짓 밝게)

지금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집에 못 가.

이수, 웃으면.

**우진(17)**

가자, 바래다줄게.

(돌아서서 이수 몰래 더 없이 아픈 표정인)

### 93. 이수네 동네 일각 (N)

조용히 밤거리를 적시고 있는 빗줄기.

한 우산을 쓰고 다정하게 걷는 두 사람. 둘의 발걸음, 어느 새 이수네 빌라 앞이다.

**우진 NA**

10분만... 아니 5분... 아니 1분만 더...

이수 집 앞에서도 차마 이수 손을 놓지 못하는 우진(17).

**우진 NA**

더는 안 되겠지...

**우진(17)**

(나직이)

이수야...

**이수**

(낮선 분위기 느끼며)

내일은

**우진(17)**

(아픈 미소를 보이며)

우리, 헤어지자.

**이수**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우진(17)**

(짐짓 밝게)

그게 좋겠어.

**이수**

...

**우진(17)**

자고 나면 얼굴이 바뀌는 나란 놈이랑... 원래부터 아니잖아.

**이수**

오빠 눈앞에 있는 진짜잖아.

**우진(17)**

됐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아...

우산 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는 두 사람. 그 위로 밤은 점점 더 깊이 비에 젖어간다.

**이수**

오빠...

**우진(17)**

(다시 한 번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헤어지자.

(하더니)

감기 들어. 얼른 들어가.

(라며 잡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이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는)

우진(17),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애써 돌려 아프게 돌아선다.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꿈쩍 않고 서있는 이수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수**

오빠... 우산 가져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우진(17), 이수의 목소리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지만 이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때, 바닥으로 우산이 툭- 떨어지는 소리.

우진(17)이 돌아보면, 쏟아지는 빗속에서 꿈쩍 않고 서 있는 이수가 있다.

두 사람, 그렇게 서로를 멀리 둔 채로 바라보고만 있다.

우진(17), 마음 아프지만 결심을 굳힌 듯 먼저 돌아선다.

입술을 꼭 깨물고 돌아서서 걷는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자꾸 멀어진다.

#### 94. 도심 전경 (시간 경과)

거짓말처럼 청명하게 갠 하늘.

그 위로,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모습이 흐른다.

#### 95. 마마스튜디오 (D)

무심해 보이는 이수 of 일상. 그리고 가만히 그녀를 따르는 눈길.

이수가 보면, 낯선 손님이 예의로 미소를 보내온다. 이수, 역시 예의 미소로 화답한다. 그 위로,

**NA**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정신을 차려 보면 결국 여기야.

이수와 스치는 여러 타인들. 그 위로,

**이수 NA**

여전히 오빠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근데...

이때, 땡그랑... 가게 문을 나서는 누군가.

이수, 우진인 듯한 남자를 자기도 모르게 뒤쫓아 나간다. 남자 손님이 돌아보면, 남자 손님, 뭔가 기대로 보는 분위기다.

**이수**

주문하신 건 내일 공장에서 바로 배송해드릴게요.

남자 손님, 실망한 듯 돌아선다.

**이수 NA**

아는 척 할 용기가 안 나.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망설인다는 거... 그 마음 들킬까 봐...

가만히 가게 앞 계단에 앉아 크게 심호흡을 하는 이수.

이를 안타깝게 보면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 하는 그림자. 역시 낯선 모습을 한 우진(몽타주남)이다.

#### 96. 떡볶이 집 (D)

우진(몽타주남), 미소로 아이 어르며 장사하는 동창생 보며.

**우진(몽타주남)**

저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고, 평범하게 나이 먹고... 보기 좋다.

남들 다 하는 저게 난 왜 이렇게 부럽냐...

상백, 못마땅한 얼굴이다.

**상백**

개뿔. 부럽긴. 늘 말하지만, 난 니가 젤, 아니 딱 너만 부럽다.

**우진(몽타주남)**

상백아, 부탁-

**상백**

싫어. 절대 안돼.

**우진(몽타주남)**

... 니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 혼자 해야 돼...

**상백**

말이 되는 걸 얘기해야 들어주지. 너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여기, 그 여자 하나 밖에 없냐? 나는? 어머니는...?!

침묵.

**우진(몽타주남)**

그럼 묻자... 너 때문에 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다면.... 그럼 넌 어쩔래?  
그런데도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 가게 되고... 나 어째야 되냐?

침묵.

**상백**

이 서운한 놈...

**우진(몽타주남)**

3개월만 지나면 괜찮다더니... 넌 인마, 순 뺑쟁이야.  
(쓸쓸한 미소)

**상백**

2년 전에 원자재 수입하는 데다 공장 세웠어. 알지? 거기면 있을 만 할 거야...

**우진(몽타주남)**

고맙다, 상백아.

**상백**



됐으니까, 꺼져. 이제 나도 나 만들고 싶은 거 실컷 만들고 살란다.

**우진(몽타주남)**

되도록 빨리 부탁할게...

**상백**

에이... 끝까지 서운한 놈...

우진(몽타주남)의 표정.

## 97. 이수네 집 (D)

이수의 시선. 보면, 우진의 + 의자가 배달되어 와있다.

**은수**

뭐냐 이건?

**이수**

이제 진짜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

그 사이 의자에 앉아 보는 은수.

**은수**

역시... 놈은 가고 물건은 남는 법이지. 이걸 팔면 얼마나 받냐?

그 말에 아픈 미소를 짓는 이수. 평평 우는 이수.

**은수**

이수야...

**이수**

언니. 이게 뭐야. 나..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나. 이래도 돼?  
어디 갔었는지, 뭘 먹었었는지, 같이 하고 본 건 다 기억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엉엉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이수를 안아주는 은수.

## 98. 이수 방 (N)

방안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이수. 멍한 이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우진이 보낸 의자의 다리가 하나 부러져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애써 울지 않으려 애쓰는 이수.

CUT TO :

이수의 좁은 싱글 침대. 언니 은수가 그녀를 꼭 안은 채로 잠들어 있다.

CUT TO :

창문으로 새벽녘 어스름이 들어온다.

보면, 침대에서 뒤집어진 채 대자로 뻗은 채로 코까지 골면서 잠든 언니.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 이수.

### 이수 NA

정말 신기하게도... 그가 사라지고 나자, 어지럽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문 너머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이수之父의 소리가 들려온다.

## 99. 거리 (D)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우진네 동네 개. 전화기가 진동하는 소리에 놀라서 같이 짖는다.

보면, 이수가 가만히 앉아 있다.

### 이수 NA

그래.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날마다 낯선 그에게 익숙해지려고 애쓸 때마다 혼란스러웠고...

그와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다.

의식을 잃고 나면... 죽었다 깨어난 것 마냥 무서웠다...

그녀의 얼굴 위로 어둠이 내려앉는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듯, 우진 집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간다.

### 이수 NA

그래... 이렇게 다 끝난 거겠지...

타박타박, 발걸음을 옮기는 이수. 그녀의 그림자가 멀어진다.

## 100. 이수의 몽타주

- 알람 소리. 마치 우진처럼 미리 깨있는 이수.
- 아침을 준비하는 이수의 모습.
- 새벽 아침 운동
- 외국어 학원 수강
- 재고 정리
- 학원 수강 등등...
- 미용실. 이수의 머리카락도 잘려 나간다.
- 새벽 조깅
- 저녁. 친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떠는 이수.

- 청소하기 (우진과의 추억이 있는 짐들, 정리해서 다용도실에 넣는)
- 어느 새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며 내려온다. 자연스럽게 머리를 묶는다.
- 이수, 괜히 낯선 듯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F.O. 자막 - 6개월 후 -

## 101. 마마스튜디오 (D)

계절은 달라졌지만, 언제나처럼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가게 내부.  
이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이때, 실장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실장**

(이수에게 인터넷에 공유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어때?

**이수**

괜찮네요.  
(하고 반사적으로 대답하다 사진 보고 놀라는)

보면, 그 속에는 우진의 가구와 닮은 가구들이 있다.

**실장**

그치 그치? 어쩐 요런 보석이 이렇게 먼 촌구석에 숨어 있었다니.  
하여튼 요즘 네티즌들은 못 찾는 게 없다니까.

**이수**

(넋이 나간 채 대답 없는)

**실장**

이거 에이전트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해보자.  
그래도 + 기존 제품들 계약 연장은 해야지?

**이수**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사진 다시 보며)  
실장님, 여기...

**실장**

응... 체크에 있는 시골 어디래. 거기서 소비하기엔 아까운 실력인데 말이야.

화면 속 사진들을 보는, 이수의 얼굴.

## 102. 상백의 공장 (D)

이수, 표정 이어지며.

보면, 그녀 앞에는 지나칠 정도로 딱딱하게 업무 얘기를 하는 상백이 있다.

**이수**

(가만히)

저 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틈없이 안 그러셔도 돼요.

상백, 이수를 본다.

**상백**

주문 제품들 일주일 내로 출고 될 겁니다.

**이수**

고마워요. 저희도 준비해두겠습니다.

CUT TO :

이수가 공장을 나서는데, 그녀의 시선에 우진과 함께 했던 공간이 들어온다. 그녀가 물끄러미 보고 있자,

**상백**

담당을 바꾸는 게 어때요?

**이수**

(체코에서 온 목재에 시선 고정 한 채)

오빠... 어때요? 잘 지내대요?

**상백**

일 하자면서 이러면 곤란하죠...

**이수**

체코... 너무 멀리 갔다... 그래도 잘 지내죠..?

**상백**

이수씨...

**이수**

죄송해요. 불편하시면, 다음엔 다른 사람 보낼게요.

이수, 고개 인사를 남기고 공장을 나간다.

멀어지는 그녀 뒷모습을 보다 한숨 쉬는 상백.

### 103. 뜨개질 가게 (N)

이수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본다.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중인 우진 母.  
이수 돌아서면, 우진 母, 이수를 본다.

### 104. 이수 집 (N)

부엌에서 홀로 점심 준비 중인 이수 父. 양파를 까면서 매운 듯 얼굴을 찡그린다.  
그런 이수 父의 뒷모습을 보는 이수.

이수  
아빠는 엄마 안보고 싶어?

이수 父  
...

이수  
...

이수 父  
김치전 부쳐 먹을까?

이수  
응... 아빠...

### 105. 마마스튜디오 (D)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쇼룸. 신입 직원과 이수가 단 둘이 가게를 청소 중이다.  
고요한 가운데, 신입 직원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때, 그 신입이 가구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서툰 실수를 한다.  
이수, 답답한 듯 다가가 대신 고쳐주는데 그 순간, 음악을 듣고 멍해지는 이수.  
그 음악은 바로 바로 우진과 추억이 담긴 노래다.  
후드득 무너져 내리는 이수.  
내내 참아왔던 눈물샘이 마침내 터져버린 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린다.  
카메라 천천히 멀어지면,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 직원은 청소 중이고, 이수는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는 가운데, 음악 소리 높아진다.

### 106. 실장 방 (D)

사표를 내미는 이수.



**실장**

스카우트 들어왔니?

**이수**

아뇨.

**실장**

그럼, 니 가게 내게?

**이수**

아니예요. 그런 거.

그 동안 저, 너무 일만 했잖아요. 여행을 가볼까 해서요.

**실장**

오케이. 뭘 그런 걸로 이런 퍼포먼스까지. 그냥 휴가 써.

**이수**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실장**

그럼 유급 휴가는 못 주겠다.

(이수 뭔가 말하려는데)

여행이라는 건 원래 돌아올 곳이 있을 때 떠나는 거야.

이수, 표정.

## **107. 이수 집 (N)**

짐을 싸고 있는 이수. 언니 은수가 옆에서 이수가 넣는 짐을 하나씩 다시 빼내며 말리고 있다.

**이수**

언니, 재미없어. 그만 해.

**은수**

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대답해. 거기 있는 거 확실해?

**이수**

내가 보고 싶어 한단 건 확실해.

**은수**

이런 미친... 아빠. 애 정말 안 말릴 거야?

뭐라도 좀 해 봐.

애 같은 길치가, 겁도 없이 혼자서 간대잖아. 응??

이수 父는 별 말 없이 보다가 집을 나간다.

CUT TO :

잠시 후, 검은 봉지 들고 들어오는 이수 父. 은수의 궁둥이를 밀치고, 짐을 싸는 이수 옆에 앉는다.

이수 父,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 챙겨준다.

모기에 유난히 잘 물리는 이수를 위한 휴대용 스프레이 모기약 등 상비약들이 잔뜩이다.

은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포옥 쉬더니 돕는다. 예상 외로 착착착 짐 싸는 숨씨가 보통 아닌 은수.

은수

(안 보며)

아프지 말고.

이수 父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아프면 아파야지.

은수

아빠...!

이수 父

그래서 이렇게 약 챙겨 가잖아. 아파도 되니까 꼭 나으라고.

이수

나, 잘 다녀올게...

언니와 아빠가 그녀가 가방 싸는 것을 돕는다.

## 108. 체코로 향하는 여정 몽타주

- 집앞
- 인천공항
- 비행기 안 등등...
- 체코 공항에서 프라하 가구 가게까지 찾아가는 이수의 다양한 여정.

## 109. 프라하 가구 가게 (D)

떨리는 표정으로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이수.

낮선 풍경에 긴장한 그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환하게 웃는다.

그녀의 시선에 우진의 가구로 추정되는 가구가 들어온다.

그녀가 조심스레 걸어가서 그 가구 앞에 선다. 가만히 가구를 쓸어 보는 그녀의 손길.

점원

(영)  
도와드릴까요?

**이수**  
(영)

한국에서 왔는데, 이곳 가구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특히, 이 가구는 저희 쪽에서도 수입 하고 싶네요...  
혹시 여기서 에이전트 업무도 함께 봐주시고 계신가요?

이수, 점원을 향해 비즈니스용 꽃미소를 마구 날린다.

## 110. 프라하 공장 (D)

- 프라하 거리 일각. 스마트 폰으로 주소를 찾다가 인터넷이 끊어지자, 한숨을 쉬는 이수.  
결국 여행 책자에 매달려 있던 지도를 보지만 쉽지 않다.  
관광 소개소 같은 곳에서 다시 지도를 구하는 이수.

- 주소가 표시된 지도를 펼쳐 들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묻는 이수.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 본 행인,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수에게 알려준다. 단, 영어가 아닌 체코어로.  
이수, 미안한 마음에 알아들은 척 감사를 전하고 돌아서서 한숨을 쉰다.  
그때, 좀 전에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가던 행인이 이수에게 다시 돌아와서 아는 척을 한다.  
보면, 멀리 그가 가리키는 곳에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다. 바로 그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다.  
그 트럭을 쫓아서 뛰는 이수.

시간경과 :  
목재와 함께 트럭에서 내리는 이수. 그녀의 눈앞에는 상백의 공장과 흡사한 구조의 공장이 펼쳐져 있다.  
특히 우진의 가구 스타일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구들. 이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때, 편안한 인상의 체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체코 할아버지**  
(영)  
누구...시죠?

그녀는 잠시, 대답 대신 말갭게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나 우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녀.

**이수**  
(영)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홍이수예요.  
(악수 청하는)

체코 할아버지 그녀의 손을 맞잡는다.  
이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본다. 그녀를 이상하게 보는 체코 할아버지.

### 이수

(얼른 프라하 가구 가게 명함을 주며, 영)

소개 받고 왔어요.

혹시... 디자이너님을 뵈 수 있을까요?

### 체코 할아버지

(온화한 미소로, 영)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 이수 NA

거짓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이수에게 찬찬히 설명해주는 할아버지.

### 체코 할아버지

(영)

여기서 벌써 50년째 가구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와 상반되게 깊이 절망한 이수의 얼굴.

시간 경과 :

뉘엿뉘엿 지는 해 아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이수. 그녀의 시선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이수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바라본다. 하지만 알 수가 없다.

결국 공장 문이 닫히고 마지막으로 체코 할아버지가 나온다.

여전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데,

고운 체코 할머니가 나타나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체념하는 이수. 터덜터덜, 실망한 채 걸어가는 이수의 뒷모습. 그 위로 노을이 깊어간다.

## 111. 프라하 숙소 (N)

이미 캄캄하게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터덜터덜 숙소 입구로 걸어오는 이수.

통통 부은 발을 내려다보며 이수, 물끄러미 전화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렵게 버튼을 누른다.

길고 긴 신호음이 이어지더니, 상백이 전화를 받는다.

### 이수

(전화 하는)

여보세요, 상백씨?

### 상백

(V.O)

헬로우.

**이수**

(반색해서)

상백씨... 지금 술... 마셔요?

**상백**

(V.O 취한 거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럼 이 시간에 물을 마시겠나... 술술 술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수**

상백씨, 아직도 저 싫어해요?

**상백**

(V.O)

그럼 완전 싫지.

**이수**

... 우진 오빠 어땀어요?

**상백**

(V.O)

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 아니 나 알아.

우정을 미친년 신발짝처럼 팽개치고 가버린 그 자식, 어땀는지... 난... 알지. 크크

**이수**

어땀어요? 저 지금 프라하예요.

**상백**

(V.O)

으이구 참 대단들 하다. 아주 세기의 연애들을 해라...쌍  
그러나!! 나 지금 완전 취했거든. 알지? 나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수**

(두근 두근)

**상백**

(V.O)

자... 받아 적는다. 오케이?

**이수**

(두근두근... 두리번거리며 메모지를 찾다가 펜만 찾는다.)



**상백**

(V.O)

베틀레므스카 331-1

자~ 나 한번만 말해.

비. 이. 티. 엘. 이. 엔. 에스. 케이. 에이. 삼. 삼. 일. 띠고 일. 오케이?

**이수**

(팔 안쪽에 상백이 불러준 대로 적는다)

**상백**

(V.O)

으하하하. 여기 체코위스키 한 병 더!!!

아침. 개 이름이... 알렉스야. 에이. 엘. 이. 엑스.

자, 파이팅. 브이. 아이. 씨. 티.. 아 이건 빅토리네...

**이수**

고마워요.

(끊는)

INSERT :

전화를 끊는 상백.

불 꺼진 공장. 상백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 **112. 프라하 스튜디오 (D)**

이른 아침의 프라하 거리.

이수, 구글맵을 보며 걸어간다.

어느 집 문 앞에 선 이수. 심호흡을 한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고, 낯선 얼굴을 한 체코 청년이 나온다.

그를 바라보는 이수. 이수를 낯설게만 바라보는 청년.

**청년**

(영)

무슨 일이시죠?

**이수**

(영)

알렉스를 찾아왔어요.

청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이수**

(영, 디자인 페이지 보여주며)

이 디자이너 분이요.

**청년**

(잠시 멍칫 하더니, 영)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이수,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그를 보며 점점 확신이 사라진다.

**이수**

(낙담해서, 영)  
분명 여기가 맞는데... 정말 아니에요...?

**청년**

(영)  
유감입니다.

**이수**

...

이수, 지친 듯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다.  
체코 청년, 순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손을 뻗는다.

**이수**

정말... 우진 오빠 아니야?

청년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은 듯 하다.

**이수**

(영)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망설이던 청년, 그녀를 집안에 들인다.  
가만히 뒤따라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이수.  
제자리에 서서 눈을 감는다. 이수를 바라보는 청년.  
이수가 눈을 뜨고 둘의 눈이 마주친다. 청년 당황한 듯 물을 따르다 소매에 쏟는다.  
무심코 젖은 소매를 걷는데, 그의 팔뚝엔 유성펜으로 낙서가 되어 있다. 도면 치수들, 주문 내용 등...  
이를 보며, 심하게 흔들리는 표정의 이수. 금세 눈동자에 눈물이 그렇그렇 차오른다.

**이수**

오빠지?

**체코 여자**

요셉? 무슨 일 있어?

**청년**

아니, 이 여자 분이 알렉스란 사람을 찾는데 혹시 자기 알아?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113. 프라하 스튜디오 앞 (D)**

비칠비칠, 간신히 서 있는 물골로 체코 청년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이수.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보다가 문을 닫는 청년.

CUT TO :

이수, 프라하 횡단보도에 서있다.

이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결에 뭔가를 느낀 듯한 표정의 이수.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고, 사람들 건너가지만 이수는 꿈쩍 않고 서있다. 가만히 눈을 감는 이수.  
불빛이 몇 번이나 바뀌지만, 이수는 누군가를 기다리 듯 고요하다...

잠시 후,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는 그림자.

눈을 감은 이수의 얼굴 위로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그러나 차마 눈을 뜨지 못하는 이수.

**이수**

169에 48.

**우진(18)**

?

**이수**

몸무게가 4킬로나 줄었어. 그래서 이제 오빠가 만들어준 의자 불편해...

그리고 사실... 내가 의자 다리를 하나 부러트렸어.

(눈을 뜨는)

그녀 옆에는 앞서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체코 할아버지 모습의 우진(18 / 남 / 60대 중반 / 체코 할아버지)가 서있다.

**이수**

(흔들리는 눈동자)

미안해...

**우진(18)**

(영)

이수야...

**이수**

보고 싶었어, 오빠...

이수, 그렇그런 눈으로 우진(18)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그녀를 보는 우진(18).

#### 114. 뜨개질 가게 (D)

우진의 그런 눈빛 이어지 듯, 40대의 남자가 우진 母 앞에 앉아 있다. 우진 父다.

우진 母

처음엔 무섭기도 했고, 화도 났어요...  
당신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러면 어쩌나...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어렸으니까...

우진 父

...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 맘 다 아니까...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우진 母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당신인 게 느껴졌거든요...

우진 父

...

#### 115. 프라하 우진의 방 (D)

침대 위. 뒷모습을 보인 채 잠들어 있는 우진. 그 너머로 잠이 든 우진을 바라보고 있는 이수.  
천천히 눈을 뜨는 우진(19 / 남 / 30대 후반 / 멋있는 남자), 모습이 달라져 있다.

우진(19)

안 잤어?

이수

아니. 폭 잤어.

이수를 보는 우진(19)의 눈빛.

#### 116. 다시 뜨개질 가게 (D)

우진 母

그래서 아픈 건 이제 겁이 안 나는데... 다른 게 겁이 나요.  
그렇게 멀리서 떠돌기만 하다가 혹시 죽기라도 하면...  
우리는 곁에서 지내보지도 못 하고 끝일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겁나요.

우진 父의 눈빛.

**우진 母**

이제, 옆에서 늙어가는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어요?

우진 母의 눈빛에서.

## 117. 프라하 일각 (N)

이수의 눈빛으로 이어지며.

그녀를 애뜻하게 바라보는 우진(19).

**이수**

무슨 남자 그러냐?

참을성도 없이... 좀 기다려 달라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멀리 도망 오냐?

준비한 반지는 주지도 않고? 그런 남자랑 누가 결혼을...

**우진(19)**

(말을 끊고)

나랑... 결혼해줄래...?

(호주머니에서 #70의 나무반지를 꺼내며)

나랑 결혼해줘.

**이수**

(환하게 웃으며)

배고프다. 여긴 초밥 없어?

**우진**

(멍하게 쳐다보면)

**이수**

(씩 웃으며)

일단 밥부터 먹자. 나 배고파...

그리고 하자.

결혼.

우진(19)가 이수에게 키스를 한다.

노을빛에 가려진 둘의 키스... 아름답다.

카메라, 우진과 이수를 감싸 돌면...

그 동안의 수많은 우진과 이수의 키스...



- the end -

크레딧이 올라가면...

여태껏 우진 아버지가 우진과 우진 어머니 그리고 이수를 도와주었던 장면들이 흐른다.

- #27

지하철에서 뒤통아떨어진 우진(05). 그가 변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고 편히 잘 수 있도록 점퍼로 얼굴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어깨를 내주는 여자. (엄마가 짜준 스웨터 다른 색을 입은, 우진 아버지.)

CUT TO :

청소부 옷을 입고 있는 앞선 여자(우진 아버지), 잠이 들어 얼굴이 바뀐 우진(06)을 깨워주고 있다.

우진(06)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애뜻하게 바라본다.

- #50

우진 어머니의 가게 안을 살펴주는 손님으로 위장한 우진 아버지의 모습.

우진(10)과 이수가 들어오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그.

건너편 가게에서 몰래 세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우진 어머니, 창을 통해 우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미안한 얼굴이다.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는 우진 아버지.

- 번외 씬

우진을 위한 장미목을 구해주기 위해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우진 아버지의 모습.

- #98 전사

마마스튜디오 실장에게 우진이 체코에서 만들고 있는 가구와 우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정보를 알려주는 신입 직원. 우진 아버지.

이수가 실장에게 장소를 묻는데, 실장이 체코 시골 어디라고 대답해주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눈이 마주치면 모른 척 하는 우진 아버지.

- #103

실장 방 밖에서 체코로 가겠다는 이수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하는 누군가. 역시 우진 아버지.

우진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구를 고르고 있다. 보면,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을 수 있는 식탁이다.

그 곁으로 다가온 우진 아버지는 킹사이즈 침대에 앉아, 곁에 앉아보라고 권한다.